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COLUMN

바람 - WISH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Danny Koo

November 2022
Vol.371

11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2022 프리콘서트

BICmf 2022 Pre-Concert

- 대전환 그리고 포용 -

예술감독 **오충근**
수석예술부감독 **한수진**
예술부감독 **김재원 김규현 백동훈**

2022. **11.16** WED **11.25** FRI

주최 |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조직위원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특별후원 | SHINSEGAE
Friendship Supporters |  송월타올 · 송월우산  대선주조  hyungji 패션그룹형지  동성모터스  BNK 부산은행  Dongsung Finetec
예매 |  인터파크  YES24.COM 공연문의 | 080.600.2030

G. Henle Verlag



Finest Urtext Editions

THE GREAT PIANISTS SERIES

“완벽을 넘어선 성역(聖域)”

András Schiff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2022. 11. 10 THU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ast media
(주) 마스트미디어

티켓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문의 마스트미디어 02-541-2512

©PETER FISCHIL



2022년 부산도슨트과정 3기 회원모집

비영리단체 부산도슨트협회(since2019) B.D.A 도슨트 교육을 안내합니다.

협회등록번호: 602-82-70***

- **장소** : 부산도슨트협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65번길 25. 부전초등학교 3층 과학실
- **회비** : 50만원(총12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 788953 부산도슨트협회
- **문의** : 부회장 박덕남 010-6207-0767
-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기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회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11/7(월)	개강식(하반기 과정) 도슨트 기본 자세와 매너	박덕남 구본호	블루아트페어 위원장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학 박사, 티엘갤러리 관장, 동명대 겸임교수
2	11/14(월)	서양미술사와 현대미술	신미숙	(전) 동아대 외래교수
3	11/21(월)	조선시대 흥미로운 장식화	권정찬	화가, 시인, 비평가 (전) 경북도립대 교수
4	11/28(월)	예술로서의 삶	최 철	한국교원대 교수
5	12/5(월)	감흥 너머 산수, 시각 앞의 풍경	우승우	(전) 계명대 외래교수
6	12/19(월)	- 전시 기획 의도와 맥락의 이해 - 도슨팅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도	김채빈	경남도립미술관 도슨트
7	12/26(월)	I색으로 해석하는 미술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8	1/2(월)	II색채 심리와 색채 미학적 관점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9	1/9(월)	가치 있는 삶, 품위 있는 죽음	안장혁	동의대 교수
10	1/16(월)	작품감상 방법과 올바른 이해	김미애	한국교원대 외래교수
11	1/30(월)	전시장의 스토리텔러, 도슨트의 역할과 실전해설법	한이준	전문 도슨트
12	2/6(월)	예술로서의 사진과 컨템포러리아트, 그리고 디지털아트의 발전 (1시간30분) 종강식(30분)	민경숙 박덕남	아트커뮤니케이션 르비드 대표 블루아트페어 위원장

현장 체험 : 시그니엘부산 국제블루 호텔아트페어 2022.11.24.~11.27

- ※ **월요일 저녁 6시30분 ~ 8시30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반기,하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반, 하반기반(총 24강) 실무강의 10시간 이수 및 정회원 가입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
명작공연시리즈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영도문화예술회

Ballet Cinderella

신데렐라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



2022. 11. 12.(토) 14:00, 18: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도문화예술회관 부산발레시어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51-419-5571-4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YES21.COM 티켓 일반 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회원 1만원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관람가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신데렐라>는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병방극장 문화공간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해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쫄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2. 12. 4 SUN 5:00 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Busan Cultural Center

슈베르트 •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137 中 제3번
F.Schubert • Violin Sonata in g minor, Op.137, No.3, D.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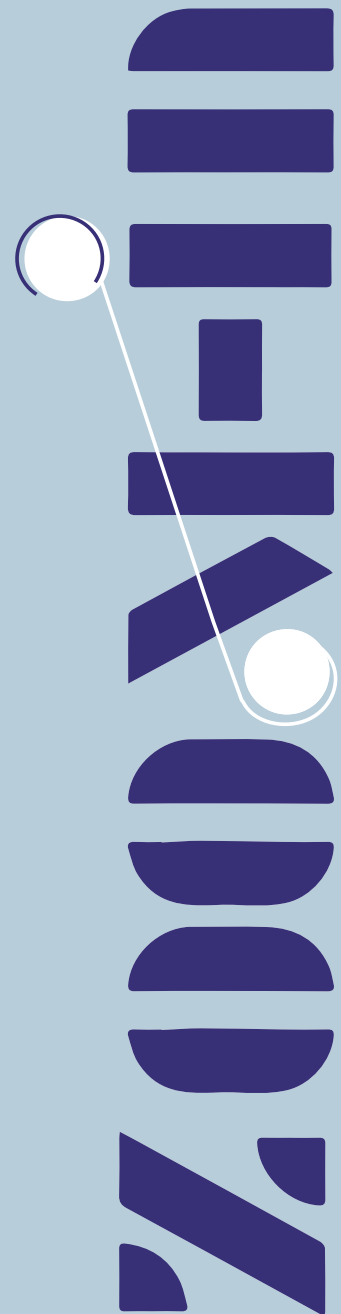
코른골트 • “헛소동” 中 4개의 소곡
E.W.Korngold • 4 Pieces from 'Much ado about nothing', Op.11

루토스와프스키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수비토
W.Lutoslawski • Subito for Violin and Piano (1992)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C.Franck • Violin Sonata in A major

바이올린 임흥균 Hong Kyun Lim,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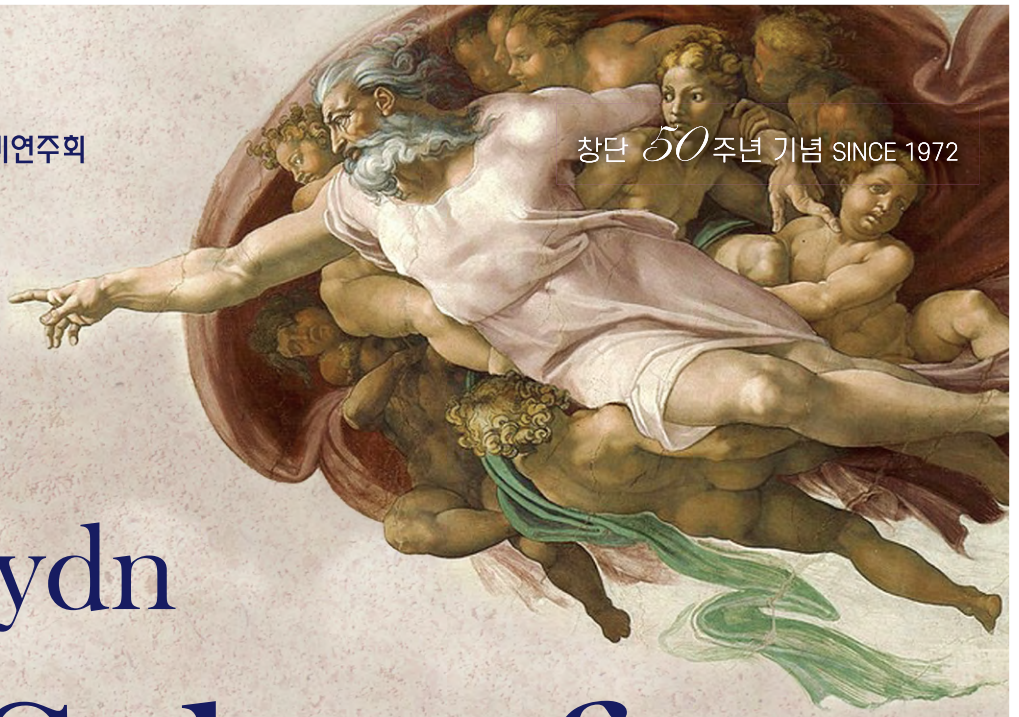
피아노 홍민수 Minsoo Hong, Piano





부산시립합창단 제188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창단 50주년 기념 SINCE 1972



F. J. Haydn

Die Schöpfung

부산MBC와 함께하는 하이든 천지창조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황병남

바리톤 이광근

베이스 문동환

부산시립합창단

United Korean Orchestra



2022. 12. 8(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MBC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A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1번)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 & 냉정과 열정사이



2022. 12. 3^{SAT} 5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NTENTS

11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November 2022 Vol.371

2022년 11월호 통권 371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10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10 Column

바람 - WISH

12 Cover Story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아버지'

18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⑩

현대예술의 후원자들 1

22 세계오페라축제 ⑩

마체라타 오페라축제

26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29 Preview

38 Issue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BICmf) 2022 Pre-Concert

40 Review

44 Program Guide

59 New Book

60 BSCC News

SUN	MON	TUE	WED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6</p> <p>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14:00 대 무료/(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513-4306)</p> <p>황보배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00 챔 초대/황보배(010-7683-1134)</p>	<p>7</p>	<p>1</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with 양인모)'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김성식 플루트 리사이틀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 '회갑(回甲)'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독주회 챔 초대/강희영(010-422-1134)</p>
<p>13</p> <p>2022 부산불교합창제 17:00 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867-0501) (재)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바라던:바다' 15:00 중 이병길(010-8874-1535)</p>	<p>14</p>	<p>8</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15</p> <p>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일파가야금합주단 '현의 노래' 19:3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아모르제 성악연구회 10주년 기념공연 'Duetto' 19:30 챔 전석 2만원/아모르제성악연구회(010-5897-0388)</p>	<p>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 트라비아타' 19:3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2022 Pre-Concert IV 'BICmf 챔버오케스트라' 19:30 중 10만원·7만원·5만원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조직위원회(080-600-2030)</p>
<p>2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17:0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2 태림&내셔널 Friendship Concert 18:00 중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010-8503-0000) 첼리스트 이명로 제10회 독주회 'Virtuoso Series II' 19:30 챔 전석 1만5천원/첼리스트의 서재(010-5029-5807)</p>	<p>21</p>	<p>22</p> <p>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2022 Pre-Concert IV 'BICmf 솔로이스츠' 19:30 챔 7만원·5만원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조직위원회(080-600-2030)</p>	<p>2</p> <p>(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전원경의 아트살롱(그림)' 19:30 챔 전석 1만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7</p> <p>소프라노 김시윤 독창회 18:00 챔 전석 2만원 아트매니지먼트 이랑(010-9338-8485)</p>	<p>28</p>	<p>29</p> <p>lirica in italia music 19:30 중 이태리음악연구회(010-6439-1875) 바로크 앙상블 동백 창단연주회 음악의 정원 시리즈 1 '동백' 19:30 챔 전석 1만원/바로크 앙상블 동백(010-5474-3667)</p>	<p>3</p> <p>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활성화 음악회 19:30 중 UKO(010-3863-3863)</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p>2</p> <p>593회 정기연주회</p> <p>07-6000)</p> <p>창회 19:30</p> <p>577-1399)</p>	<p>3</p> <p>최민경 피아노 리사이틀 19:30</p> <p>첼름 초대/최민경(010-9496-2687)</p>	<p>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회란기' 19:30</p> <p>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KPS 정기연주회 '19세기 피아노 음악' 19:30</p> <p>첼름 초대/무지카 기획(010-7742-0556)</p>	<p>5</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회란기' 15:00</p> <p>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9</p> <p>공연_모두를 위한 오페라</p> <p>관(607-6000)</p> <p>공공연</p> <p>악' 10:30, 14:00</p> <p>사업팀(607-3113)</p>	<p>10</p> <p>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19:30</p> <p>대 13만원-10만원-7만원-5만원</p> <p>(주)마스트미디어(02-541-2512)</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p> <p>'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00</p> <p>첼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11</p> <p>Turn Toward Busan 'UN 평화콘서트' 19:30</p> <p>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p> <p>'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p> <p>첼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12</p> <p>부산 메세나 음악회 17:00</p> <p>대 부산메세나협회(200-4612)</p> <p>(재)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p> <p>'바라던;바다' 17:00</p> <p>중 이병길(010-8874-1535)</p> <p>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서정적 살롱' 18:00</p> <p>첼름 전석 1만원/강소영(010-3645-7953)</p>
<p>6</p> <p>2022 Pre-Concert I</p> <p>' 19:30</p> <p>조직위원회(080-600-2030)</p>	<p>17</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p> <p>'BPO Odyssey: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 19:30</p> <p>중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2022 Pre-Concert II</p> <p>'BICmf 손민수독주회' 19:30</p> <p>첼름 7만원-5만원</p> <p>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조직위원회(080-600-2030)</p>	<p>18</p> <p>2022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00</p> <p>중 초대/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010-7676-9124)</p>	<p>19</p> <p>노엘함창단 창단 60주년 기념 제61회 정기연주회 19:00</p> <p>대 초대/노엘함창단(010-8516-9822)</p> <p>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9:00</p> <p>중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010-6418-9567)</p> <p>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2022 Pre-Concert III</p> <p>'BICmf 실내악' 17:00</p> <p>첼름 7만원-5만원</p> <p>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조직위원회(080-600-2030)</p>
<p>3</p> <p>메이 특강</p> <p>콘서트)' 11:00</p> <p>부산문화회관(607-6000)</p>	<p>24</p> <p>제1234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p> <p>첼름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p>	<p>25</p> <p>❖ 부산시립극단 제73회 정기공연_음악극 '나혜석' 19:3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극단 골목길</p> <p>'경숙이, 경숙아버지' 19:30</p> <p>중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p> <p>(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박지수 더블베이스 귀곡 독주회 19:30</p> <p>첼름 초대/박지수(010-6513-1926)</p>	<p>26</p> <p>❖ 부산시립극단 제73회 정기공연_음악극 '나혜석' 17:0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극단 골목길</p> <p>'경숙이, 경숙아버지' 15:00</p> <p>중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p> <p>(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27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p> <p>첼름 부산플루트앙상블(010-2459-4147)</p>
<p>0</p> <p>스트라 청년, 청소년</p> <p>087)</p>		<p>제48회 부산미술대전</p> <p>11월 14일(월)-12월 3일(토)</p> <p>(사)부산미술협회 632-2400</p> <p>전시실</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	<p>제10회 부산불교방송 기념 부산불교방송(010-5211-1111)</p>
<p>6</p> <p>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2022 부산국악축제 '우리 모두를 위한 大同' 17:00 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7	8	<p>2022 부산공연콘텐츠 '토끼의 시간'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p>
<p>13</p> <p>뮤지컬 '캐치! 티니핑-프린세스 다이어리'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5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14	15	<p>제14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14:00 대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554-0159)</p>
<p>20</p> <p>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15:00, 19: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p>	21	22	<p>국립발레단 꿈나무 교향악 'Fly Higher with K'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박종철 5만원·2만원/영축사</p>
<p>27</p> <p>2022 부산인태내셔널뮤직페스타 17:0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오가락 & 음악세상 예술공연단 어울림 한마당 17:00 소 디딤예술단(010-6345-0924)</p>	28	29	<p>2022 문화가 있는 날 '춤을 말하다' 19:00 소 무료(선착순 예매)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무천년대축제 19:00 (2555-6810)	KNN방송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_교향곡 마스터피스 시리즈 '멘델스존'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 KNN방송교향악단(850-9568) 제69회 한얼노인축제 10:00 소 초대/(사)한국노인교육연구소(637-5983)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음악회 '동행Ⅲ' 19:30 대 부산자원봉사포럼(010-2026-8280) 안택재현 및 안택놀이 14:00 소 해운대달맞이민속농악단(010-3582-0303)	
9	10	11	12
트페스타_예술집단C (문화회관(607-6000))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_예술집단C '토끼의 시간' 19:3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뮤지컬 '캐치! 티니핑-프린세스 다이어리'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5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2022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14:00 소 무료/(재)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745-7294)
6	17	18	19
	제12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 14:00 대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861-0119)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00 소 광복회 부산지부(256-5815)	부산음악대축제 III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19:30 대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음악대축제 IV '협주곡의 밤' 17:00 대 부산음악협회(634-1295) 2022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14:00 소 무료/(재)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745-7294)
3	24	25	26
실_발레 갈라 'NB' 19:30 (문화회관(607-6000)) 부산영산재 시연회 19:30 (010-5511-7000)	수험생을 위한 팬텀콘서트 19:00 대 부산문화방송(주)(760-1123)	2022 생명나눔의 날 '제17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19:00 소 무료(사전 예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853-0429)	2022 부산인터내셔널뮤직페스타 18:0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2회 전국교과서 시낭송대회 10:00 소 (사)시읽는문화(010-2303-2411)
0			
전시 명품극장 (07-6000)		부산경상대학교 디자인계열 졸업작품 전시회 11월 1일(화)-11월 6일(일) 제1, 2전시실 박주미 010-5549-3045 제24회 부산사생회 정기전 11월 8일(화)-11월 12일(토) 제1, 2전시실 부산사생회 010-6436-0662, 010-2870-0505	제48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21일(월)-11월 27일(일) 제1, 2전시실 부산미술협회 632-2400 2022 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 11월 29(화)-12월 3일(토) 제1, 2전시실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바 wish 람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부산에서 지낸 시간을 헤아려보니 벌써 24년 하고 7개월 남짓이다. 이젠 진정 부산 사람이 되었다고 혼자 자부한다. 처음 옮겨온 부산의 느낌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도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부산이 좋은 도시임을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부산에 바람이 있다. 대부분의 세계 미항들은 아름답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그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와 부를 창조한다. 세계 3대 미항을 꼽아보면 호주의 시드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이탈리아의 나폴리라고 한다. 반갑게도 부산이 손꼽히는 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를 우연히 부산일보에서 검색하였다.

‘2022년 2월 22일 세계의 주요 통신사들은 한국의 부산이 세계 5대 미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톱뉴스로 전승하였다. 여기에는 17세기 일본 파견 통신사의 출발지로 시작되었던 국제 교류의 장이 연간 컨테이너 3천만 개를 처리하는 세계 5위 국제 무역 항구로 발전하게 된 역사 외에도 항만을 배경으로 한 문화 예술 공간, 인간과 바다 그리고 자연이 같이 하는 다양한 녹색 친수 공간, 항구를 채우고 있는 21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구성된 것을 선정 이유로 달았다’라는 기사였다. 반갑고 놀라운 기사였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과 씩씩한 느낌이 따라오는 이유는 뭘까?

누군가 언제부터인가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빗대어 부산이라는 도시를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정말 부산은 출산을 전국 꼴찌를 달리고, 청년층의 유출 또한 가장 심하며, 노령인구의 증가율 또한 타 도시에 비해 상위를 달리고 있다. 부산만의 잘못과 과오는 아니지만 직시하고, 당면한 해결 문제로 인정해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이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을 하였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학위를 마친 후 바로 부산에 정착하였다. 이에 두 도시를 서로 비교하며 장단점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필자에게는 정말 특이한 곳이었다. 약 4년 정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지내면서 그래픽 디자인의 초석을 다진 곳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인들에게 질문한다면 금문교(Golden Gate Bridge), 안개가 자욱한 도시, 케이블카 등일 것이다. 부산에도 랜드마크인 광안대교(Diamond Bridge)가 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pple, MS, Adobe, HP 등 테크놀로지의 집산지이며, 컴퓨팅 기술의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 본부들이 가까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비싼 곳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산호세, 팔로알토, 쿠퍼티노 등의 위성도시들도 함께 가장 잘 나가는 곳이 되었다. 또한 컴퓨터 3D 애니메이션의 시초인 픽사(Pixar)와 아이폰을 만드는 곳으로 Made in California를 자랑한다. 하지만 부산은 제조업이 쪼그라들면서 르노삼성자동차 공장이 있는 녹산공단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대륙의 발견부터 의미가 있는 곳으로 미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별난 유럽-아마 해양성 기후로 인한 연교차가 가장 적은 곳으로, 여름은 춥다고 느끼며 겨울은 눈이 절대 오지 않으면서 평균 20도를 유지하는 아주 따뜻한 곳으로 히피들과 예술가들의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무채색 후드와 청바지, 운동화로 무장하기에 패셔너블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으로 여겨진다. 부산도 해양성 기후로서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곳으로 관광 산업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유명한 대중가요 중에서 'San Francisco(Be Sure to Wear Flowers in Your Hair)'는 미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인 스콧 매켄지(Scott McKenzie)가 1967년에 발표한 노래이다. 스콧 매켄지가 부른 버전은 1960년대의 히피 문화, 베트남전 반대 운동, 사랑과 평화(Flower power) 운동 등을 상징하는 비공식적인 국가였다.¹⁾ 노래는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아달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한다. 꽃은 1960년대 사랑과 평화 운

동의 상징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gentle people을 만날 수 있는데 gentle people은 반전 평화주의자를 말한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당신의 머리에 꼭 꽃을 꽂으세요)', 이렇게 시작한다.

필자가 유학 시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아트스쿨을 다녔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남 선생님들의 약 70%가 게이이며, 여 선생님들 상당수도 레즈비언이었다. 필자가 학교를 등교하려면 선셋에서 다운타운까지 뮤니(트램)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카스트로 스트리트(Castro St.)를 지나 가게 된다. 여기는 정말 동성애자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사람들과 독특한 애정 행각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곳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생활비와 집세 등의 지출이 생각보다 많은 곳이기도 필자는 이렇게 가끔 바꿔 부른다.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유명한 곡인 토니 베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는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직역을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내 마음이지만 필자는 워낙 비싼 생활비에 빗대어 'I left my walle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내 지갑으로 바꿔 부르곤 한다. 부산에도 '굳세어라 금순이'가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 유일한 유엔묘지와 평화공원도 있다. 평화와 엘러지의 도시라 해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BTS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부산이 잠시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손에 잡힐 듯하다. 펜데믹도 물러가고 해운대와 광안리는 오늘도 축제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아 달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처럼,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머리에 동백꽃을 달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대신해 해운대 연가를 부르며 부산에서 함께 부비고 사는 날을 꿈 꾸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1 <https://bardland.tistory.com/693> 바드랜드 올드팝송 가사해석 스콧 매켄지-샌프란시스코 노래

해피바이러스 대니의 음악에
누구나 커넥트되다

DANNY KOO

CONNECTED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With 피아니스트 원재연



Program

코른골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헛소동 모음곡 Op.11

라벨

소나타 제2번, 사장조

INTERMISSION

바흐

샤콘느 제2번, 라단조 BWV 1004

슈만

소나타 1번, 가단조 Op. 105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대니 구가 부산을 찾는다. 대니 구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가이자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클래식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로 전 세계 무대에 서왔다.

세상과 소통하는 연주자

199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대니 구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음악가로서 명성을 쌓아오다 지난 2017년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 멤버로 국내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으로의 활동 보폭을 넓힌 대니 구는 클래식의 즐거움과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국악, 재즈, 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래식 연주자의 일상과 미완성 연주를 공개,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중과 클래식 음악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특히 MBC '복면가왕', JTBC '슈퍼밴드2'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특유의 친근함과 밝은 에너지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탁월한 진행능력으로 최근에는 MBC 'TV예술무대' MC로 발탁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핑크퐁(아기상어)의 '클래식 가이드'로 출연하면서, 이후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에도 꾸준히 출연, '클래식 음악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클래식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니 구는 2021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서울체임버오케스트라, KNN필하모닉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등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비롯해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롯데콘서트홀 첫 단독 콘서트까지 꾸준히 무대에 서왔다. 올해 들어서는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첫 솔로 앨범 'HOME' 발매를 시작으로

룩포트 실내악 페스티벌, 토론토 체임버 페스티벌,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고양 아람누리극장 마티네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번 부산 공연에 앞서 11월 1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도 리사이틀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발매한 미니앨범 'HOME'은 대니 구가 추구해온 음악의 집합체로, 재즈부터 펑키, 민요, 보컬이 담긴 자작곡까지 장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음악들을 담아내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클래식과 관객을 커넥트드 하다

대니 구는 이번 무대에서 '커넥트드'라는 주제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클래식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코른골드, 라벨, 바흐, 슈만 등 우리나라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린의 대표 작품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그와 수차례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원재연이 함께한다.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알프레드 브렌델, 마르타 아르헤리치, 리처드 구드 등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으로부터 '제일 높은 피아니스트 프로페셔널리즘에 다다른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극찬받은 바 있다. 원재연은 2022년-23년 시즌, 미국, 유럽 등지의 유수의 공연장에서 데뷔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골목길

경
속
이
,
아
버
지

- Ⓢ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3:00
-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몸짓 목소리 표정...소름 돋는 연기 - 동아일보

왓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진다 - 조선일보

배우들이 관객에게 인사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 경향신문

연극이 막을 내릴 때쯤이면 경속아버지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왜 그랬는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림고 보고 싶다 - 중앙일보

명품연극 '경속이, 경속아버지'가 부산을 찾아온다.

극단 골목길의 '경속이, 경속아버지'는 지난 2006년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히서연극상-기대되는 연극인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동아연극상-작품상, 희곡상, 연기상(고수희),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배우 이한위, 박철민, 장영남 등이 합류한 2007년 재공연 시에는 평균 객석점유율 110%를 기록하며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나갔으며, 연극의 인기로 2009년에는 TV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다. 2010년에는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인 '명품연극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 관객과 평단의 열렬한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극단 골목길 작품 중 다시 보고 싶은 연극 중 하나로, 올해 극단 골목길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현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가족이 등장하여 관객을 울리고 웃긴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을 버리고 혼자 피난길에 나선 경숙아베, 비록 남편에게 버림 받았지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평생소원인 경숙어메, 아베가 세상에서 제일 싫지만 또 그만큼 아베가 너무나 그리운 경숙이, 그리고 경숙어메를 사랑하는 껍깍, 아베의 애인 자야, 인생의 장단을 두드리라는 할배 등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던 가족의 모습과 인생이 그려진다. 극 중에서는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는데도 맛깔나는 사투리와 엉뚱한 상황 덕분에 웃을 수 밖에 없는 '웃픈 연극'이 바로 '경숙이, 경숙아버지'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캐릭터는 바로 경숙아베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사나이로 태어나 꿈 한번 제대로 이뤄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과는 많이 다른, 1950~60년대 한국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오히려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이번 무대에서는 극단 골목길 소속 배우 고수희, 성노진, 황영희, 안소영, 이호열과 SBS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비리형사 김봉식 역을 맡아 리얼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서동갑이 출연하여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오랜만에 경숙이 가족으로 다시 만난 배우들의 열연이 기대된다. 극단 골목길은 국내 스타 연출가로 이름을 알린 박근형 연출가가 이끄는 극단으로 유명하다. 1999년 연극 '청춘예찬'으로 국내 연극계의 모든 상을 휩쓸며 관객들과 평단에 이름을 알린 박근형은 2003년부터 극단을 이끌며 연극 '대대손손', '경숙이, 경숙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이장', '만주전선',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등과 같은 화제작들을 선보였다. 극단 골목길은 '대학로 배우 사관



학교'로 불리며 배우 박해일, 윤제문, 엄효섭, 황영희, 고수희 등 연기파 배우를 대거 배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연극 장르의 대중화와 관객 개발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린다. 우선 11월 25일에는 '연출가와와 만남' 특강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연극이라는 예술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26일에는 공연 전 관객들이 무대 뒷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와 공연 종료 후, 배우와 관객이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이 연극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올해 처음 시작된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은 민간과 국공립, 중앙과 지역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창제작 환경 조성과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재)부산문화회관과 극단 골목길,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울산중구문화의전당이 함께 했다.

영원한 애증의 대상 '아버지'

경속이 '아버지'

김미도 연극평론가, 서울과기대 교수

우리 연극계에서 박근형과 극단 '골목길'만큼 확고한 스타일을 갖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근형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독보적인 작가이자 연출가로서 늘 탄탄한 희곡을 바탕으로 '골목길' 특유의 연기술에 의한 완벽한 앙상블을 추구한다.

박근형의 연극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 안의 트라우마, 특히 '부성(父性)'의 부재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실존적 방황이 두드러진다. <쥐> <청춘예찬> <대대손손> <경속이, 경속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이장>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와 역사에 대한 예리한 시선으로 '국가'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만주전선>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해방의 서울> <코스모스:여명의 하코다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풍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6년에 초연된 <경속이, 경속아버지>는 박근형의 수많은 히트작들 중에서도 가장 꾸준히 사랑 받는 작품이다. 박근형의 단골 소재인 '아버지'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전경화되어 나타난 작품이기도 하다. 박근형이 그리는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며 때로 폭력적이다. 박근형이 처음으로 연극계의 주목을 끈 <청춘예찬>(1999)에서부터 백수인 아버지는 늘 김치 쪄가리나 참치캔을 안주 삼아 소주 병을 달고 산다. 어머니는 부부싸움 끝에 아버지가 뿌린 염산에 눈이 멀어 집을 나갔으며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 가정은 해체되었고 가족간의 위계 질서도 붕괴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말을 일삼고 그들 사이엔 종종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다.

<경속이, 경속아버지>에서 경속 아베는 평생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닌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가족을 남겨 두고 혼자 떠난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베가 데리고 온 껍껍이 아재는 아베가 다시 집을 떠난 사이에 경속 어메와 동침하여 경속이 동생을 만든다. 아베는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듯하지만 어메의 해산 즈음에 작부 출신의 정부 자야를 데리고 나타난다. 어메가 아들을 낳았으나 이내 죽어버리고 자야마저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버리자 아베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른다. 아베는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나고 경속과 그 어메는 자야, 껍껍이 아재와 더불어 기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대대손손>(2000)에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역사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데 그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문제적이다. 연극을 하겠다며 가출한 '일대'의 아버지 '이대'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남다르지만 그 자신은 신혼 초에 월남에 갔다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버리고 왔다. 그 아버지 '삼대'는 일본 창녀와의 사이에 '이대'를 낳았으며 전쟁 후에 돌팔이 낙태 수술을 업으로 삼았다. '이대'의 아버지는 '삼대'가 아니라 일본인일 수도 있다. '삼대'의 아버지 '사대'는 친일파로서 아내를 일본인에게 상납하면서까지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해방 후 일본으로 쫓겨갔다.

박근형은 급기야 작품 속에서 아버지를 죽인다. <너무 놀라지 마라>(2009)에서는 극 초반에 아버지가 양복을 차려입고 홀연히 화장실로 들어가 목을 매 자살한다.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래 전 가출한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연극에서 가장 파격적인 설정은 화장실에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치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장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버지는 때때로 자식들에게 제발 자신을 내려달라고 하소연하지만 그는 끝내 편히 누울 수 없다. 시신이 말을 하고 함부로 다루어지는 초현실적인 설정 속에서 박근형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아버지에게 잔인한 복수를 행하는 느낌마저 든다.

박근형이 그리는 아버지들은 미워해야 마땅한 아버지들이지만 끝내 연민마저 놓아버릴 수는 없게 만든다. 그 아버지들 또한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들이고,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던 존재들이며, 시대의 질곡 속에서 격랑에 휩쓸렸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경숙이, 경숙아버지>에서 경숙 아베는 계모의 구박 속에 어린 시절 집을 나와야했지만 그 아베로부터 역마살과 신명을 천형처럼 물려받았다. 좋은 삶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결국 자식의 몸 안에 깊이 새겨진 채 아이의 삶을 지배하고 뒤흔든다. 자식의 의지에 의해 폭력의 대물림이 부분적으로 끊어지기도 하지만 끈질긴 '심리적 유전'의 고리는 대를 이어 반복되고 변형된다. 경숙이는 표면적으로 아버지를 철저히 미워했으나 출산의 순간에 '아버지'를 목이 터져라 부른다. 그리고 경숙이가 낳은 아이는 결국 '아버지'를 똑 닮았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녀의 무의식에 상존해왔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신발'은 대물림의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한다. 아베가 가출할 때 그 아베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준다. 밖으로만 떠돌다 경숙의 대학 졸업식장에 나타난 아베도 경숙에게 신발을 선물한다. 그 신발에는 모진 현실과 맞서 나가야 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박근형 연극의 가장 큰 재미는 '가난한' 무대에서 최소한의 소품들로 순간순간 매우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꾸며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 얼핏 별거송이 무대처럼 보이지만 연극이 진행될수록 간단한 세트와 소도구들의 다양한 변주가 창의적인 장면들을 재치있게 구성하며 관객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고도로 숙련된 '골목길' 배우들의 적절히 이완된 연기는 관객들의 심리를 능란하게 쥐락펴락하며 넘치는 유티와 짙은 페이소스의 간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것이다.

현대예술의 후원자들 1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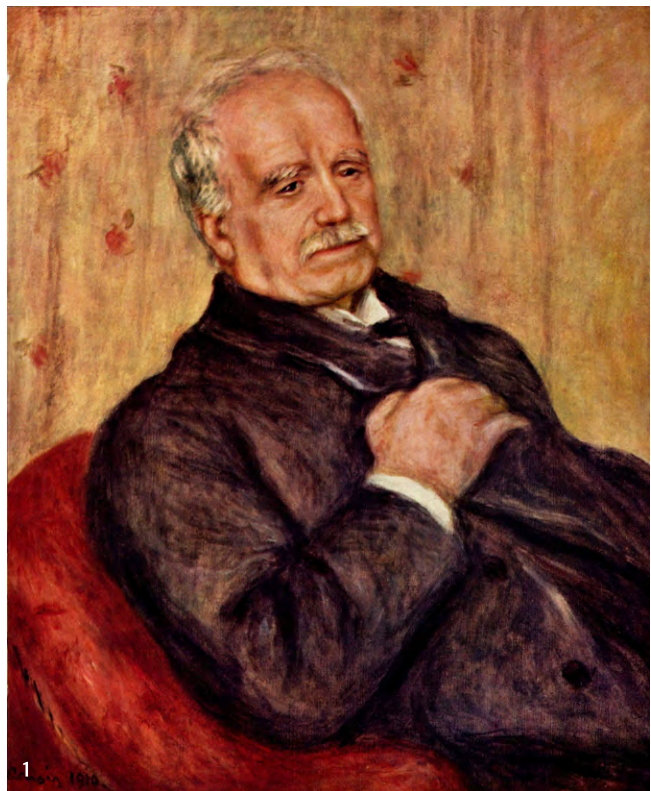
최근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모았던 예술품이 국가에 기부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다른 지역의 미술관에서 열린 기부 작품 전시는 연일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그간 삼성미술재단의 수장고에 있던 작품들이 오랜만에 외출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유한 개인이 수집한 예술작품에 대한 공금증도 한몫했다. 이렇듯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르네상스기의 메디치가와 같은 사업가 집안이나 왕실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층 혹은 종교 시설 등에서 예술은 중요한 수집품이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 감상용으로 제작되는 현대 예술이 형성된 19세기 말부터도 여러 컬렉터와 사업가들에 의하여 예술작품은 수집되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감식안을 가진 이들은 아직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새로운 미술을 미리 알아보고 이를 구입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과 사회적 인맥을 십분활용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힘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술작품 역시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상품으로 작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중개할 수 있는 판매상이 필요했다. 아트딜러 혹은 화상이라

불리는 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 중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딜러와 컬렉터들이 있다.

인상주의를 미국에 소개한 화상 뒤랑 뤼엘

서양 현대미술에서 중심이 되는 인상주의자들은 처음에 미술에 등단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살롱전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예술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기존의 미술시장과 미술계의 구조를 떠나 새로운 판을 만들고자 한 젊은 예술가들의 패기에 관심을 보였던 이 중 한 명이 화상이었던 폴 뒤랑-뤼엘(Paul Durand-Ruel)이었다. **[도판 1]** 모네(Claude Monet)와 드가(Edgar Degas), 마네(Eduard Manet) 등을 만나면서 뒤랑-뤼엘은 이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뒤랑-뤼엘은 이들의 작품을 수십 점씩 사들였다. 팔리지 않는 작품을 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1 르누아르, <폴 뒤랑-뤼엘의 초상>, 1910년, 캔버스에 유채, 65X54cm





2 레오와 거트루드 스타인의 살롱 모습, 1906년경

졌음에도 뒤랑-뤼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구입했고, 어려운 화가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거나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판로 없이는 뒤랑-뤼엘의 믿음만으로는 인상주의 화가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래서 뒤랑-뤼엘은 모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뒤랑-뤼엘에게는 자금과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고, 당시 파리에 그림을 사러오던 미국인 컬렉터들에게 미술품 증개를 하면서 유럽을 벗어날 필요를 느꼈다.

프랑스에서는 비웃음을 샀던 인상주의 그림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대성공이었다. 유럽미술의 중앙인 파리에서 온 최신의 미술이라는 점은 미국인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1887년 뉴욕에서 미술협회의 주최로 열린 인상주의 전시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인상주의 회화는 영국과 독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판매할 작품이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시대가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화가들이었던 인상주의자들은 일약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었다. 유럽만이 아니라 배로 전 세계가 모두 연결된 새로운

시대에 인상주의는 유행하게 된다. 이렇게 뒤랑-뤼엘은 그저 수완이 좋은 화상을 넘어, 미술 시장 변화에 일조했으며 무엇보다 인상주의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예술운동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피카소와 마티스를 키워낸 거트루드 스타인

뛰어난 화상이 있었다면, 그들과 거래를 하던 출중한 감식안의 컬렉터도 있었다. 미국인이지만 파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도 그중 한 명이다. 처음 미술품 구입에 관심을 둔 것은 오빠인 레오 스타인(Leo Stein)이었지만, 거트루드 역시 함께 예술인들을 만나고 작품을 모았다. 거트루드 스타인의 취향은 시대를 앞선 '아방가르드'한 예술들이었다. 그리고 화가 뿐 아니라 조각가, 문학가, 음악가 등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감각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은 파리 플뢰뤼가 27번지(27 rue de Fleurus)의 스타인 살롱으로 모여들었다. **[도판 2]** 그중 하나가 마티스(Henri Matisse)의 <모자 쓴 여인>(1905)이

었다.**[도판 3]** 이 작품은 1905년 살롱 도톤전에 출품된 것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좋은 평을 마티스는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혹평을 받았던 작품이었다. 콧대의 초록선을 비롯한 강렬한 색의 일반적이지 않은 사용과 거친 붓질, 더하여 인체와는 너무나 다른 형태는 사람들에게 마치 야수와 같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전시가 끝나기 전 그림이 500프랑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에 레오 스타인에게 팔렸다. 그리고 스타인의 살롱 벽을 장식하게 되었다. 비록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작품을 알아보고 구입해 준 후원자가 있었기에 마티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일년 후쯤 마티스의 작품 위에 한 점의 그림이 걸렸다. 그것은 스페인 출신 화가 피카소가 그린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화였다.**[도판 4]** 피카소는 스타인의 살롱에 입성하자마자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했다. 그러면서 다소 어눌하지만 강한 억양의 프랑스로 거트루드 스타인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카소

는 거트루드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초상화를 위하여 거트루드는 수십 번 모델을 서야 했다. 하지만 얼굴이 맘에 들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한참을 시간을 끌던 피카소는 어느 날 이 초상화를 선보였다. 몸에 죄는 여성의 옷을 입기보다는 남성용 코트를 즐겨 입곤 했던 거트루드의 풍채와 호탕한 성품이 자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얼굴은 실제 모습과 달리, 매끈한 타원의 눈에 뾰족한 콧날의 모습은 오히려 아프리카 가면의 형태에 가깝다. 그래서 실제 모습보다 너무나 무겁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당사자인 거트루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다.

이렇듯 야수주의와 입체주의를 이끈 위대한 예술가는 스타인의 살롱에 작품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거트루드는 오빠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화가들을 도왔다.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에 유명해질 젊은 작



3
마티스, <모자 쓴 여인>, 1905년, 캔버스에 유채, 81×60cm,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4
피카소, <거트루트 스타인의 초상>, 1906년, 캔버스에 유채, 100×81.3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5 <페기 구겐하임과 잭슨 폴록>, 1946년경 사진

가들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왔고 그들의 작품을 모았다.

미국 현대미술을 형성한 페기 구겐하임

현대미술작품은 과거와 달리 왕가나 귀족, 교회가 아닌 예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컬렉션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훌륭한 작품의 경우 국가에서 구입을 하거나 기증받아 국립미술관에 소장되기는 하지만, 20세기의 훌륭한 미술품들은 안목있는 개인에게 소장되었다. 부유한 미국의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던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은 미술가를 후원하고 뛰어난 작품을 모았다. [도판 5]

구겐하임은 유럽에 가서 예술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미술품을 사들였다. 현대미술가와 교류하면서 배운 안목을 바탕으로 런던에서 첫 갤러리인 구겐하임 준(Guggenheim Jeune)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나자 뉴욕으로 다시 들어와서 1942년에 금세기 미술 갤러리(the gallery Art of This Century)을 맨해튼에 열었다. 이 갤러리에서 입체주의, 추상회화, 초현실주의 등 유럽의 신진 미술 뿐 아

니라,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예술가였던 마더웰(Robert Motherwell), 폴록(Jackson Pollock), 로스코(Mark Rothko) 등 미국의 현대미술을 이끌 미래의 추상표현주의 예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페기 구겐하임의 안목과 투자를 기반으로 금세기 미술 갤러리는 시대를 앞서는 아방가르드 미술가이자 새로운 미국의 미술을 이끄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 이후 페기 구겐하임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네치아의 대운하 변에 있는 저택을 사들여 여생을 보냈고, 이곳은 현재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을 볼 수 있는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판 6]

예술을 사랑한 후원자들

인상주의를 알아본 뒤랑-뤼엘, 피카소와 마티스를 지지해준 거트루트 스타인,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세계적인 미술이 될 수 있게 도운 페기 구겐하임 등 이처럼 새로운 미술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예술가를 후원하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꾼 컬렉터들은 이외에도 많다. 비록 이들이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을 주요한 예술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자신의 취향을 찾아 작품을 모으고 예술가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했다는 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후원자들은 그저 많은 돈을 가지고 이를 통한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잘 알고 즐겁게 해나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러한 후원자들이 적지 않다. 다음 칼럼에서는 한국의 미술과 문화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후원자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6 베네치아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전경

마체라타 오페라 축제

MACERATA OPERA FESTIVAL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올해 초, 이번 시리즈인 ‘오페라 축제’ 연재에 앞서 앞으로 소개할 10개 안팎의 오페라 축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세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그 첫 번째로 뮌헨(Munchen), 취리히(Zurich)와 같은 대도시에서 열리는 오페라 축제, 두 번째가 페사로(Pesaro)의 로시니 오페라 축제,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의 푸치니 페스티벌과도 같은 오페라 작곡가가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지역을 기반으로 열리는 오페라 축제, 마지막으로 오페라 극장은 아니지만 축제가 열릴 수 있는 특별한 베뉴(Venue)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보았다.

이번 호에 소개할 오페라 축제는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의 베로나 오페라 축제와 같이 세 번째 경우이다.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주의 작은 도시 마체라타(Macerata)에서 열리는,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 축제라고도 불리는 마체라타 오페라 축제 이야기이다.

Opera





1.2 스페리스테리오 전경

마체라타의 스페리스테리오

Sferisterio di Macerata

고대 이탈리아에서부터 행해진 운동경기인 팔로네 콜 브라시알레(Pallone col bracciale)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 팔로네는 지금의 핸드볼과 비슷한 구기 종목 스포츠인데 15~16세기 이탈리아에서 널리 행해졌다. 당시 마체라타 사람들은 팔로네 경기를 보고 즐길 수 있는 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세기 전반기에 마체라타에 살고있던 몇몇 부유한 시민들의 모금활동으로 1820년, 살바토레 이노센치(Salvatore Innocenzi)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1820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가 이레네오 알레안드리(Ireneo Aleandri)의 디자인으로 대체되었고, 1829년에 스페리스테리오가 완공된다.

첫 작품은 피에라베르토 콘티(Pieralberto Conti) 백작이 이끄는 시민 사회의 후원 하에 열렸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Aida)’였다. 이로써 스페리스테리오 경기장은 야외 극장으로 바뀌게 된다. 깊이 15m, 너비 40미터 규모의 거대한 곡선 무대를 만들고 그 바로 아래에 오케스트라를 배치하고 무대 주변에는 객석을 배치했다. 양 옆으로 너비가 넓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피트 끝에 위치한 연주자는 서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단점도 노출되었지만, 객석에 다다른 음향은 손색이 없었다.

이집트 정복자의 의기양양한 승리를 위한 웅장한 입구를 제공하기 위해 배경 벽의 중앙에 큰 구멍이 만들어졌다. 당시 ‘아이다’는 약 7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17번 공연되었으며, 이는 이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다. 다음 해는 폰키엘리의 ‘라 지오콘다(La Gioconda)’가 공연되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큰 실패를 거두게 되고 이 여파로 스페리스테리오에서의 오페라 공연은 꽤 오래동안 중단되게 된다. 이후 1967년 제작자 카를로 페루치(Carlo



Perucci)에 의해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Otello)’와 푸치니의 ‘나비부인(Madam Butterfly)’으로 다시 오페라 공연이 재개되었다.

마체라타 오페라 축제 Macerata Opera Festival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마체라타 시, 지방 행정부 및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아레나 스페리스테리오 협회(Arena Sferisterio Association)가 1986년부터 해마다 7월과 8월, 3~4편의 오페라를 올려 이탈리아 전역에서 관객을 모으고 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뒀니뒀니 해도 스페리스테리오 그 자체이다. 건축적 아름다움과 무대와의 조화는 그 어떤 야외무대 공연보다 특별한 공간적 음향적 경험을 제공한다.

여름에 열리는 오페라 축제 외에도 다양한 국제 행사와 바로크 음악연주회가 스페리스테리오에서 열린다. 협회는 설립 5년만인 1991년 장관령으로 법인이 되었고, 1993년 여름부터는 마체라타 시가 이를 계승하여 스페리스테리오의 오페라 축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1967년 제정된 법률 No. 800/67 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의 주요 극장에 ‘전통 극장(Teatro di Tradizione)’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스페리스테리오도 이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지역 예술 및 음악 전통을 안정적으로 홍보하고 보존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페라 축제 초기에는 주로 인기 있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이탈리아 오페라를 선보였지만 최근 레파토리는 점차 더 현대적이고, 이탈리아 이외의 외국 작품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이는 재정적인 뒷받침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3 스페리스테리오 내부 전경 4 스페리스테리오 파사드 5 스페리스테리오 객석 6.7 오페라 '아이다' 8 마체라타 페스티벌 축제 포스터

름난 오페라 가수를 기용하면서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영화감독 켄 러셀(Ken Russell)의 유곽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나비부인'과 뉴욕시의 오토바이 갱단을 배경으로 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카르멘 (Franco Zeffirelli Carmen)'과 같은 새로운 연출의 작품도 마체라타 오페라 축제에서 손꼽히는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처음 마체라타를 걸음했다. 마체라타는 마르케 주의 주도라지만 인구 4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이탈리아 중동부 끝자락에 위치, 비교적 이름난 도시인 페루자(Perugia)와도 약 120km 남짓 떨어져 있어서, 이탈리아 여행 중 토스카나 지방을 여행하거나 로마를 찾겠다고 해도 손쉽게 다가가기 힘든 도시이다. 게다가 주변 도시들도 생소해 연계해서 방문하기도 어렵다. 역시나 오페라를 만나기 위해 8월 중순 찾았는데, 처음 만났던 스페

리스테리오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야외 오페라 무대를 무수히 만나보았지만, 가장 유니크한 베뉴로 기억된다. 당시 '아이다'를 볼 수 있었는데, 대형 스크린을 두고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활용한 연출은 공간만큼이나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재방문 하고 싶은 오페라 축제이긴 하지만 기록치 않다.

2022년 올해의 경우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마체라타 오페라 축제가 열렸는데, 오페라 '토스카', '팔리아치' 그리고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공연되었다. 이 밖에도 눈에 띄는 건 축제기간 중 피렌체의 5월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주빈 메타가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을 올렸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산타 체칠리아 국립관현악단을 이끌고 지휘자 정명훈이 베토벤 제6번, 제7번 교향곡을 연주한 공연도 눈에 띈다.

책방골목의 부흥을 꿈꾸라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박나무 자유기고가

보수동 우리글방은 나의 단골 헌책방이었다. 조용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던 노 사장님은 어느날인가부터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몸이 많이 불편해 시골에서 요양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헌책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이번에 취재를 위해 보수동을 방문했을 땐 그이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조문도 가지 못한 후계자 지망생의 불충은 이 지면을 빌어 명복을 비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갖고 있던 책을 내다 팔던 보수동 골목이 헌책방 골목이 되었으니, 이제 책방골목은 2세대를 지나 3세대들이 운영하는 시대가 되었음직 하다. 그러나 헌 책은 쌓여있고 주인이 부르는게 값인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것이 보수동 책방골목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매력이기도 하리라.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책방골목은 아직도 아나로그 감성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도심 한가운데서 큰 돈을 불러내기 힘든 헌책방들이 타운을 이루는 세월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난망이다.





그래도 책방골목 문화관이 책방골목의 파수꾼처럼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10여년 전 중구청의 힘으로 문을 연 책방골목 문화관은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 중구청이 직영하기 시작했다. 1층은 주변의 남포동과 광복동,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용두산공원과 영도대교 등을 안내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2층과 3층엔 책방골목의 역사를 영상자료와 모형 등을 보여주는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어, 추억 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4층은 30여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 6층과 7층은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5층은 사무실, 8층은 옥상정원이니 돈을 버는 공간은 없다. 그래서 관청이 운영하는게 맞지 않고, 시민들이 무상으로 편하게 사용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다.

11월 캘리그래피 강좌를 시작으로 책방골목 문화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책방골목 문화관이 시작될 때 실무를 담당했던 고은화 계장이 10여년만에 바통을 넘겨받아 진두를 지휘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헌책방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서사가 가득하고 그 냄새가 우리의 감성을 후비고 있다.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보물들이 책방의 곳곳에 가득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성을 가진 책들이 가치를 더 할 것이다” 보수동 헌책방에 대한 주무관의 애정이 담백 묻어나니, 내일의 책방골목 문화관이 기대가 된다. 최근 헌책방골목에 대한 미디어의 주목도 늘어나고 있어 꺼져가는 불빛이 살아날 것 같기도 하다. 단편영화나 뮤직비디오로도 조명되고 있으니, 한 번 찾아볼 일이다.

매년 수백 만명이 오로지 책방 하나 때문에 찾아가는 영국의 헤이온와이(Hay-on-Wye)라는 마을도 있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세 시간, 또다시 한 시간 버스를 타야 갈 수 있는 시골이다. 책방마다 자기 이야기와 테마를 갖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바다와 산과 시장, 부산역에 부두까지 끼고 있는 보수동책방골목이 그에 뒤질 일은 아니다. 세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과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부터 즐길 일이다. 지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도 유익한 프로그램과 아동도서들이 가득이다. 이번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헌책방골목을 천천히 걷고, 책방골목 문화관 북카페에서 아픈 다리를 쉬며 책장의 양서들을 뽑아 유유자적하기를 권한다.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00~오후 6:00(월요일 휴관)

문의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743-7650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합창단 | 부산대학교 합창단,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지휘 이명근



소프라노 왕기현



엘도 양송미



테너 황병남



베이스 김동선

2022. 12. 6 | 화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



●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오페라 (Barrier-Free)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11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배리어프리 오페라는 지난 2016년 부산경남방송 KNN 특집 프로그램 '배리어프리 오페라'를 통해 세계 최초로 오페라에 배리어프리를 도입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진정한 배리어프리 문화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배리어프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암전 상태에서 선보인 초연 '어둠 속의 오페라 라 보엠'과 유명 DVD의 시각장애인용 언어 옵션을 제작한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예술의전당 일반 오페라 공연에 시각장애인을 초청, 배리어프리를 제공한 '빛이 된 오페라 마술피리'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페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소리로 보는 오페라', '모두를 위한 오페라' 등 오페라 갈라콘서트에 성우 드라마와 그림자극, 방향이 입혀진 음향효과음, 음악 수어 등을 더하면서 청각 장애인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갈라 콘서트에 해설 및 그림자극, 성우 목소리 연기를 더한 한 편의 음악 드라마로, 수어 퍼포먼스와 문자 통역까지 더해져 시각장애인은 소리만으로도, 청각장애인은 보이는 것만으로도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오페라를 자주 접해 보지 못한 비장애인 또한 색다르게 오페라를 만날 수 있어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진정한 '배리어프리 오페라'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최초로 '배리어프리 오페라'를 기획, 연출하여 뉴욕페스티벌 금상 및 동상, 국무총리상,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던 KNN 아나운서 정희정 예술감독이 오페라 도슨트로 직접 해설을 맡았으며, 국립오페라단에서 주역을 도맡아 연기한 소프라노 이윤경과 테너 이범주, 바리톤 최병혁 등 국내 최고의 성악가가 출연한다. 또,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도울 성우에는 국민성우 배한성, 뽀로로 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이선 등이 참여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강에스더, 이정훈, 최요섭 등 실력과 수어통역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배리어프리 오페라 체임버 오케스트라(지휘 윤승업) 및 배리어프리 오페라 합창단이 가세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Turn Toward Busan UN 평화콘서트



●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추모공연 'Turn Toward Busan_UN 평화콘서트'가 1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전 세계인들이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과 추모행사를 갖는 것으로, 지난 2007년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캐나다인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매년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숫자 '1'은 전 세계가 '하나(One)'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턴 투워드 부산'에 맞춰 열리는 UN 평화콘서트에서는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유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김덕수패 사물놀이, 소프라노 황신영, 테너 김우경, 소리꾼 박성희, 남성중창단 비바팬텀이 출연,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1부에서는 부산유엔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에 이어 소리꾼 박성희와 비

바팬텀이 관객과 만난다. 남원 춘향제 전국판소리 명창대회 우수상,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대통령상, 한국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으로 있는 박성희는 이번 무대에서 시연가, '배 띄워랴'를, 비바팬텀은 '지금 이 순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테너 김우경과 소프라노 황신영이 우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인 메트로폴리탄, 라 스칼라, 코벤트가든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우경은 가곡 '가고파',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를, 유럽 전 지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신영은 가곡 '내 마음은 호수요',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무어 루치아' 중 '침묵에 휩싸여'를 들려주며, 이어 레하르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를 이중창으로 들려준다. UN 평화콘서트의 마지막 주인공은 사물놀이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루어낸 김덕수패 사물놀이로, 광복 50주년 UN총회 축하공연으로 작곡된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마당'(강준일 곡)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

일 시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공연시각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500명에 한하여 티켓 배부, 좌석지정 불가)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주최** 부산광역시, 재부울산향우회, 부산일보,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극단 제73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 **시대를 앞서 간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극단의 음악극 '나혜석'이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 무대와 조명, 영상의 결합, 그리고 무용, 연기의 결합을 시도한 실험극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초연무대를 통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관객들로부터 호평받은 바 있다.

1948년 서울 자혜병원에서 무연고 행려병자로 쓸쓸히 죽어간 여자, 그 여인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진보적 여성 운동가, 문필가로 이름을 날린 나혜석이다. 나혜석은 당시 시대를 앞선 사고방식과 사회생활에 대해 무지하랴만큼 순수했던 성품 탓에 결국 비극적 인생을 산 신여성이었지만 삶과 작품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에 도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유를 추구했던 조선 근대 여성이다.

이렇듯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그녀의 활동은 죽음 직후에도 주목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나혜석일까. 왜 우리는 몇 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녀의

작품과 사상을 보며 놀라워할까. 도대체 나혜석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디에 파묻혀있었던 말인가. 그리고 누가 파묻었을까. 이번 작품은 나혜석의 삶을 통해 그녀의 존재로 대변되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인권 확대가 사회적인 저항이나 혹은 기득권과 부딪혀 갈등을 빚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자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부조리를 직시하고 성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부산시립극단의 무대적 실험이기도 하다. 나혜석은 지난해 초연무대에 이어 올해도 무대와 객석이 자리한 대극장 위 원형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백현주가 작곡, 홍충민이 안무, 그리고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전진이 지휘를 담당했다. 작품 속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마치 한편의 시와 같고 영상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작품에 동시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더불어 대금, 해금, 피리, 가야금, 생황,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세션과 나주시립합창단은 관찰자로서 서사성을 부여하고 무용수들은 인간 나혜석의 심리를 몸짓으로 구현하며 '나혜석'이란 인물을 무대에서 되살린다.

일 시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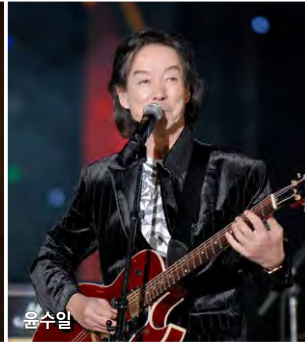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BIMF 부산인터내셔널뮤직페스타



최백호



윤수일

- (재)부산문화회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대중음악 축제의 장 '2022 BIMF 부산인터내셔널뮤직페스타'가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 매김한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축제의 장으로, 재즈와 락 그리고 팝이 어우러져 다양하고 이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축제 첫날인 11월 26일에는 재즈밴드 SGM과 재즈 보컬리스트 시호,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최백호가 무대에 선다.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재즈밴드 SGM은 이탈리아 Scatola Sonora Accademi a di Musica에서 재즈기타 디플로마를 수료한 기타리스트 박완신이 이끄는 밴드로, 보컬리스트 이다솜(Somm), 피아니스트 이주윤, 베이시스트 박한울, 드럼주자 서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풀하면서도 매력적인 일본의 재즈 보컬리스트 시호(Shiho)는 지난 2001년, 재즈 듀오 'Fried Pride'의 보컬로 데뷔한 후 독보적인 가창력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대매너로 재즈 스탠다드부터 소울, 록 넘버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첫날 무대를 마무리하는 주인공 최백호는 거친 허스키 보이시에서도 때론 마음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으로, 고회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방송,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둘째날인 11월 27일에는 다국적 연주밴드 One Drop East와 남미 라틴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GETZ, 싱어송라이터 안수지, 그리고 불후의 국민가요 '아파트'의 주인공 윤수일이 관객과 만난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 등 다국적 연주자들로 결성된 One Drop East는 지난해 7월, 미국 유력매체 CNN이 부산을 소개할 때 배경음악으로 삽입한 'Abandon Seoul'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남미의 푸른 열정을 전 세계로 전파한 재즈 연주자 스탠 게츠(Stan Getz)의 이름에서 유래된 밴드 GETZ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쿠바 전통 음악인 '손(SON)'과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댄스음악인 살사와 차차, 맘보 등 라틴 음악이 가진 화려한 타악과 관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2014년 싱글앨범 '왜'를 발표하며 '아가싱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수 안수지는 특히 드라마 '청춘의 덫' 주제곡을 부른 가수로 유명하며 최근에 TV 예능 프로그램인 '싱어게인2'에 출연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가수 윤수일은 대중적인 록 사운드를 선보이며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로, 그의 자작곡으로 채워진 1집 앨범은 현재까지도 최고의 명반으로 꼽힌다.

일 시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27일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세계로 떠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4회 정기연주회가 1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휘자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객원지휘자 윤한결이 지휘하고 원숙한 음악성과 인간애의 조화로 예술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회 KSO국제지휘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며 화제를 모았던 지휘자 윤한결은 앞서 2019년 1월, 독일의 지휘 콩쿠르인 2018/19 캠퍼스 지휘 경연대회에서 3위를 수상했으며, 8월에는 250여 명이 참가한 그슈타드 메뉴히 페스티벌&아카데미에서 지휘 부문의 1등상인 네메 예르비 상을 당당히 거머쥔 바 있다. 윤한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과 메클렌부르크 주립극장의 제2카펠 마이스터로, 2022년 3월에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활동했으며, 그동안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쾰른 시립교향악단,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

단, 북독일 필하모닉,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 뉘른베르크 슈타츠필하모닉,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도트르문트 필하모닉 등을 지휘한 바 있다.

첫 곡으로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그 화려함과 애절한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를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의 연주로 들려준다. 매년 수회의 독주회와 초청연주를 통해 끊임없는 예술적인 감각과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의 진면목을 선보여온 임재홍은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부산 클래식 뮤직소사이어티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클래식 전문 음악 YouTube 채널 'jaehong TV Violin Playground'를 운영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 임재홍은 비르투오소적이고 현란한 기교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중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 특유의 개성과 음악성이 잘 드러난 걸작으로, 그의 교향곡 제4번, 제6번 '비창'과 더불어 후기 3대 교향곡의 하나로 꼽힌다. 교향곡 제4번에 이은 '운명'을 주제로 한 순환형식의 작품이며, 이례적으로 3악장에 왈츠를 사용했다.

일 시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지휘 안두현



피아노 이현진



첼로 박건우



기타 김진택

- **영화 속 감미로운 OST로 시간 속에 갇힌 우리의 추억을 재소환하는 감성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가 12월 3일 부산을 찾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루지 못한 옛사랑을 다룬 두 편의 영화 속 가장 아련하고 애뜻했던 장면을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라이브 선율로 감상하면서 차갑고도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정과 기억을 마주할 수 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이와이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는 우리나라에 처음 개봉한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들판에서 연인을 그리워하며 외치는 주인공의 모습은 당시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또 하나의 인생 러브스토리로 손꼽히는 '냉정과 열정사이'는 아름다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남녀의 이별과 이후 8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일본의 소설가 에쿠니 가오리와 초지 히토나리가 하나의 사랑을 남녀 각각의 시점에서 쓴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두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감미로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스토리와 주인공들만큼 사랑받았고 아직까지

도 회자되고 있다. '러브레터'의 주제곡인 'Winter Story', '냉정과 열정사이'의 OST인 'History', 'The Whole Nine Yards' 등은 발매 당시 싸이월드 BGM 등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영화 OST로서는 의외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방송계에서 BGM으로 쓰이며 대중들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감독 안두현이 지휘하는 아르츠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두 작품의 주옥같은 명곡들과 명장면을 테마별로 재구성하여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이현진, 첼리스트 박건우, 기타리스트 김진택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실제 영화에서 흘러나왔던 음악을 더욱 생동감있게 감상할 수 있다.

정통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장르를 넘나드는 대중성을 겸비한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전국 주요 공연장에서 100회 이상 공연을 갖는 등 창단 1년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 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별 우수한 기량을 관객들에서 선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이 12월 4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첫 주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임홍균 악장이 통찰력 있는 음악성과 견고한 연주로 주목받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홍민수와 함께 슈베르트, 코른골트, 루토스와프스키, 프랑크의 대표적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은 서울예고를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프랑스 파리로 도불, 파리시립음악원과 파리고등국립음악원 및 동음악원 실내악과정을 졸업한 후, 독일 베를린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파리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으로 발탁되어 활동했으며, 일본 Hyogo Performing Arts Center Orchestra(Musical Director-Yutaka Sado)에서 3년간 수석주자로 활약한 바 있다. 귀국 후에는 성남시향,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충남도립교향악단 객원악장을 역임했으며,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대관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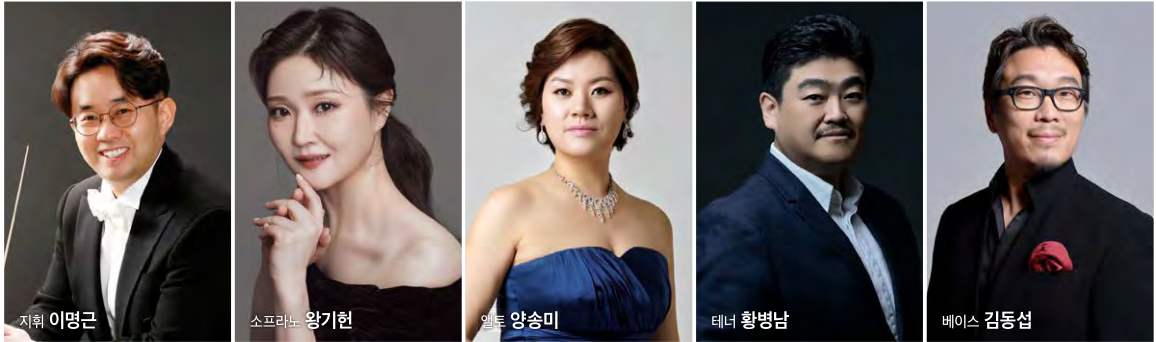
정명훈의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수 차례 연주하고,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객원악장으로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 2018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장으로 교향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프로그램의 기획도 겸하고 있는 그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예원, 서울예고, 부산예고, 부산대학교에 출강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비전임 교원)로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제58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피아니스트 홍민수는 일찍이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2011년과 2014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페루치오 부조니 콩쿠르에서 2회 입상하고 이어서 2016년 윤이상 국제콩쿠르 3위 입상, 201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네델란드에서 열린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화려한 수상경력과 함께 만9세의 나이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데뷔한 홍민수는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독주 및 협연, 실내악 무대를 가져오면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홍민수는 현재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중이다.

일 시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 제68회 정기연주회에서 말러의 교향곡을 연주하여 화제를 모았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22년 마지막 무대로, 인류 최고의 걸작이라 칭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선사한다.

베토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작곡한 역작이자 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은 사랑과 평화, 환희를 주제로 한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합창이 4악장에 등장하면서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곡으로, 특히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평등과 박애,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아 연주되고 있다. 모든 교향곡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대규모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곡이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 후 처음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왕기현, 앨토 양송미, 테너 황병남, 베이스 김동섭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부산대학교 합창단과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이 웅장한 합창무대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왕기현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유럽 무대에서 데뷔한 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에서 오페라 가수 및 전문 연주자로 활동해왔다.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오스트리아 Wiener Staatsoper, Opern Graz 주역가수로 활동했으며,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 롯시니 아카데미아상,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주역상 등을 수상했다. 테너 황병남은 오스트리아 Ferruccio Tagliavini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및 최고 테너 특별상, 올해의 평론가상 수상, 일본 Madam Butterfly in Nagasaki 국제성악콩쿠르 2위, 2007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도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바리톤 김동섭은 뮌헨(ARD) 국제콩쿨 1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3위에 입상했으며 빈 슈타츠 오페라단에서 수여하는 에버하르트 메달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 ‘환희의 송가’를 노래할 부산대학교합창단은 지난 1968년 창단하여 올해로 창단 54주년을 맞는, 국내 국립대 최장수 대학생합창단이며,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은 지난 2009년 창단 후 그동안 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 합창곡을 연주해오고 있다.

일 시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Pre-Concert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BICmf)

대전환 그리고 포용

11월 16일(수)~25일(금)

부산문화회관, 누리마루 APEC하우스

문의 080-600-2030

2023년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BICmf: Busan International Classic Music Festiv)의 탄생을 알리는 'BICmf 2022 Pre-Concert'가 11월 16일부터 부산문화회관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펼쳐진다.

'대전환 그리고 포용(Great Transformation & Embrac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국제적인 항구도시 부산의 역사성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음악축제 '2023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를 만들어가는 전초의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과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를 견인해온 세대와 세계 음악계를 견인해나갈 새로운 세대가 음악으로 '포용'하는 꿈의 음악축제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마련되는 이번 음악제는 세계 주요 클래식 콘서트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부산 출신의 지휘자 오충근 예술감독(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을 필두로 한국인 최초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수석예술부감독을 맡고 전 스위스 톨랄레오케스트라 부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한국 실내악의 대표주자인 노부스콰르텟 멤버로 활동중인 비올리니스트 김규현,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예술부감독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백재진, 송지원, 비올리니스트 김상진,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손정범, 그리고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임윤찬을 키운 스승 손민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들이 부산에 모여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를 꽃피운다. 'BICmf 2022 Pre-Concert'는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공동 주최한다.



I. BICmf 챔버오케스트라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클래식 현악계를 이끌어온 대표 스승들이 펼치는 오프닝 무대. BICmf챔버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이경선(서울대학교 교수),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그리고 하프스트 황세희의 협연으로 엘가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 헨델 '하프 협주곡', 아테르베리 '바이올린, 비올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3번, 브리튼 '단순교향곡'을 들려준다.

- 리더 이경선 • 연주 BICmf 챔버오케스트라
- 바이올린 백재진, 이경선 • 비올라 김상진
- 첼로 이명진 • 하프 황세희
- 입장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II. BICmf 손민수독주회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의 무대로, 화려하고 현란한 기교가 돋보이는 리스트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 곡은 제자 임윤찬이 반클라이번 콩쿠르 무대에서 연주하여 화제가 된 곡으로, 이번 무대를 통해 그의 폭풍 같은 기교와 음악성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가능할 수 있다.

-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III. BICmf 실내악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국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한국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시그니처 콘서트 무대. 1부에서는 한국인 최초 뮌헨 ARD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레오폴트 모차르트 콩쿠르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그리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이정현이 멘델스존 '피아노 3중주

제1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요하네스 브람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비올리스트 신경식이 가세하여 브람스 '피아노 4중주'를 들려준다.

- 피아노 손정범 • 바이올린 송지원
- 비올라 신경식 • 첼로 이정현
-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IV. BICmf 솔로이스츠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늦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실내악 무대. 백동훈의 클라리넷, 장현성의 바순, 김형주의 호른 등 관악기에 한수진과 이우일의 바이올린, 김규현의 비올라, 이원해의 첼로와 조용우의 더블베이스 연주로 슈베르트의 '8중주 바장조 D.803'을 들려준다. 슈베르트 '8중주'는 전체 6악장의 대규모 실내악곡으로, 특히 주선율을 담당하는 클라리넷의 매력적인 소리가 다른 악기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감상할 수 있다.

- 클라리넷 백동훈 • 바순 장현성 • 호른 김형주
- 바이올린 한수진, 이우일 • 비올라 김규현
- 첼로 이원해 • 더블베이스 조용우
-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V. BICmf 스페셜콘서트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5:00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산의 특별한 명소인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리는 스페셜 콘서트. 올해 Pre-Concert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있을 BICmf를 기약하는 무대로, 경기클래식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송영훈과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으로 구성된 '4첼로 송영훈과 친구들'이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4대의 첼로로 특별한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 입장료 초대(초청자에 한해 관람 가능)

스위스 시계장인의 면모를 보여주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2회 정기연주회

◆ 김현정 부산MBC 가정음악실 작가

지난 10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이 펼쳐졌다.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하반기 연주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 보다 화려하며 다채로운데, 그중에서도 이날의 공연은 특히 부산의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은 공연이었다. 매 무대마다 놀라운 연주력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협연자로 나선다는 것과 2020년부터 국내 최초로 진행된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의 매듭을 짓는 연주회였기 때문이다.

여유로운 미소를 가득 머금은 신창용이 등장하자 객석에선 기대가 가득 담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잠시 숨을 고른 신창용과 최수열 지휘자는 서로가 연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 연주를 시작하였다. 강렬한 오케스트라의 화음에 이어지는 리드미컬 하면서도 파워풀한 피아노의 서주로 1악장이 펼쳐졌다. 슈만이 이 협주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서주 후 이어지는 오보에와 피아노의 대화는 슈만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재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1악장이 연주되는 동안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는 서로 깊은 대화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마치 슈만과 클라라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낭만적이었다가, 아련하기도 했고, 때론 폭발하는 듯한 정열로 가득 차 있었다.

이어지는 2악장은 신창용의 섬세하면서도 맑은 터치가 돋보였던 악장이었다. 달콤하면서도 정감 어린 선율이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면 현악기가 그 아름다움을 더





해주었다. 마치 슈만이 살았던 그 시절, 그곳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움이 담긴 연주였다.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3악장을 마주하게 되는데, 기교적이면서도 화려한 피아노 연주에 숨죽이게 되는 듯했다. 고조되는 분위기는 금관악기들이 더해지며 그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동안 고양되었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면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객석에선 뜨거운 박수와 갈채가 터져 나왔고, 커튼콜이 이어지자 신창용은 다시 피아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이어진 앙코르 곡 슈만/리스트의 '현정'은 그날 모든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만큼 감정선이 돋보이는 연주였다.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하기 전날 그녀를 향한 마음을 담아 작곡한 곡인데, 이날 신창용의 연주에서는 슈만의 애뜻함과 그녀를 향한 절절함, 그 속에서도 절제미가 돋보이는 담백함으로 듣는 사람을 몽클하게 했다.

2부에서는 라벨의 스페인적 혈통과 취향을 담고 있는 두 작품이 연주되었다. 먼저 연주된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는 '밤의 전주곡', '말라게냐', '하바네라', '축제'로 이루어져 있다. 현악기가 네 개의 하행하는 음형을 거듭 반복하는 모티브로 시작되는 이곡은 신비로우면서도 관능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음이 우리를 마법에 빠지게 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곡에 반할 준비를 마친 관객들에게 최수열 지휘자는 본격적으로 이 곡의 매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이 곡에서 최수열 지휘자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짓에 따라 최고의 스테

레오 스피커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듯 한 입체적인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고, 라벨의 관현악 곡에서 느낄 수 있는 섬세한 다이내믹함과 색채감이 연이어 쏟아졌다.

그리고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볼레로'였다. 볼레로는 스네어드럼과 현악기의 피치카토로 곡이 시작되고 목관악기들이 주제 선율을 돌아가면서 연주한다. 이후 다른 악기들이 하나 둘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리듬과 두 개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기에 자칫 단조롭게만 들릴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곡인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볼레로'는 이 곡이 가진 다채로움과 정교함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소리로 시작한 이 곡은 악기들의 연주가 거듭 될 때마다, 악기들이 합류할 때마다 음향이 점점 부풀기 시작해서 결국 폭발적인 관현악 총주에 도달했다. 이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에서는 '점점 더 크게'라는 크레센도의 정석을 보여주었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 연주가 정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된 관객들은 이 곡이 끝나감에 분명 아쉬운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정교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음악을 다루는 라벨을 두고 스트라빈스키는 '스위스 시계장인'이라 표현했다고 한다. 이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라벨의 음악을 이보다 맛깔나게 다룰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음악에 담긴 모든 것을 보여준 연주였다.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마친 부산시립교향악단 역시 '스위스 시계장인'이라 표현하고 싶다.

근본(根本)과 기본(基本) ?!

블랙스트링 콘서트

◆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권태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권태의 양은 과거보다 늘었다고 할 수 있지. 과거의 직업은, 적어도 대부분의 직업은 정열적 집착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 그들의 땅과 사랑에 빠진 농부, 아름다운 탁자를 만들어 내는 마술사인 내 할아버지, 모든 마을 사람들의 발 크기를 외우던 구두 수선공, 그리고 산지기, 정원사도 마찬가지였어. 당시에는 군인도 아마 정열적으로 살인을 했을 거야. 각각의 직업은 그 고유한 직업의식, 존재 방식을 낳았지. 의사는 농부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군인은 초등학교 교사와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가졌지. 오늘날 우리는 모두 비슷해.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무관심하다는 공통점으로 균일화된 거지. 이러한 무관심이 열정이 된 거야. 무관심이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집단적 열정인 셈이지.” 이는 유명한 체코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책 ‘정체성’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 시대의 집단적 열정이 ‘무관심’처럼 비춰지는 시대를 소리, 음악이라는 직업 열정으로 통쾌하게 반박한 밴드가 있다. 선비의 악기인 거문고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블랙스트링(BLACK STRING)’이다.

블랙스트링 멤버인 거문고 허윤정, 기타 오정수, 대금 이아람, 타악기&소리 황민왕과 게스트로 첼로 김 솔 다니엘이 지난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부산시민회관을 찾았다. 우리네 음악을 바탕으로 세상과 소리로 소통하는 이들의 음악은 근래 공연 현장에서 만나기 힘든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우리 음악의 혼탁박 기본 위에 채색되어가는 선율의 흐름은 박과 한몸이 되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삶의 굿판을 펼쳤다. 전문 음악인들이 연주를 하면서 소리의 본질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연주되어 들려지는 소리에 너무 열정을 쏟을 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



다. 이유인즉 예술, 특히 소리예술인 음악은 시간적이며 청각적이고 즉시성의 현장 예술이기에 시간성과 공간성에 충실하다 보면 정작 들려줄 소리의 본질적 이유와 소리 나는 현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번 블랙스트링의 연주는 사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 갔다는 점에서 예술이 가고자 하는 맥을 잘 잡고 있었다.

‘근본’과 ‘기본’은 다른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구분하거나 또는 구분하고자 하면 구시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술인들은 분명 이를 구분하여 사유해야 한다. 필자는 예술에서 근본은 사유하는 것이며, 이 사유를 통해 예술가들은 행위로 보여준다. ‘근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기본’이다. 예술가들은 이 기본을 치밀하고도 철저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을 최고의 도구로 만들어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예술은 우리네 삶이 무게를 느낄 때, 그 무게를 잠시라도 쉬게 해 주는 것이다. 그 도구 중 하나가 소리이며, 이 기본에 충실한 밴드가 블랙스트링임을 그들은 무대에서 증명하였다.

우리 박(拍)의 흐름은 다양한 생명의 흐름을 담고 있다. 강줄기를 이루는 큰 박속에 숨결같이 흐르는 셋강의 잔박들이 어우러져 도도히 흘러간다. 이에 배 띄우는 선율들의 흐름은 윤슬처럼 아름답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도 서로를 향한 하나 됨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기에 가능한 것이다. 소리의 울림은 사라지나 가슴에 남아있는 여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감동이란 이러한 것이다.

블랙스트링의 음악은 우리 음악의 별신곳에서부터 불교의 범패와 처용무의 굿판, 멀리 남미를 넘나들며 심지어 바벨론의 공중정원에서는 기원전 바벨론의 사랑 이야기까지 시대와 세상을 넘나든다. 이날 초대 손님인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의 첼로는 우리의 소리와 이질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어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더해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조금 비어있는 듯한 부드러운 현악의 소리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 블랙스트링과 하나되는 소리의 울림을 만들었다.



이는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연주한 여덟 곡의 공식 연주와 한 곡의 앵콜은 요즈음처럼 힘들어하는 관객들에게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이라며 삶의 굿판을 한판 걸쭉하게 펼쳤다. 그리고 관객들도 더불어 잘 놀았다.

한 곡, 한 곡에 담겨있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공연 전체가 담고 있는 해학과 삶의 애환을 소리로 풀어내는 블랙스트링의 공연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네 삶은 본디 해학적이며 밝음이다. 애환이라는 것도 밝음과 충만함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본질에 보다 충실하게 다가가고 있는 집단. 이들은 분명 밀란 쿤데라의 ‘무관심’의 정체성을 유쾌하게 뒤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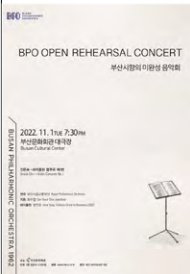
현대는 더욱더 섬세하고도 집요하게 개인의 삶을 노래한다. 이는 새로움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이야기한다. 예술의 본질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예술 행위가 사회와 시대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기 전에 이미 앞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하는 사유의 힘을 지녀야 한다. 이럴 때 예술이 시대의 흐름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블랙스트링의 힘. 선비의 정신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그들만의 새로운 시선이 담겨있는 소리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대된다.

“시대를 앞서기보다는 근본에 충실한 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시대의 소리에 마음을 내는 블랙스트링은 강렬한 박(拍)에 스며드는 현(絃)의 부드러움으로 세상에 사랑 굿을 전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with 양인모)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93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오픈 리허설 형식의 '미완성 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이날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제593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진은숙 '바이올린 협주곡'의 리허설을 통해 최수열 예술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협연자 양인모는 지난 2015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9년 만에 등장한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화제를 모았다.

김성식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풍부한 감성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플루티스트 김성식 독주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 입학한 후 학사 및 석사,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성식은 그가 지향하는 음악인의 면모를 갖추고자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와 강의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키움과 동시에 연주자로서의 다채로운 경험도 쌓아가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연주로 각광받고 있다. 김성식은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예고, 덕원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성민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일 시 |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의 자존심을 지닌,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무대 '회갑(回甲)'. 가장 부산다운, 개성이 넘치는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22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무대에 올라 창단의 의미를 되새긴다.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축하 전주곡
진은숙/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독창회

일 시 |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희영 010-4577-1399



러시아 정통 유학파로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서 연주학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자르브뤼켄 주립극장 오페라 합창단 원을 역임한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독창회. F. Cilea 국제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강희영은 그동안 국립오페라 '루치아', '에브게니 오네긴'을 비롯한 다수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 협연자 및 솔리스트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러시아 유학 당시 깊이 이해했던 러시아 가곡에 대한 깊은 조예와 레퍼토리의 연구 결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문학의 거장을 노래하다'라는 테마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푸시킨의 시에 의한 러시아 가곡과 메조소프라노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서혜리 • 해설/김유선

최민경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민경 010-9496-2687



진정 음악의 아름다움을 아는 연주자로,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히 표현하며 섬세한 감성과 다양한 음색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트로쌍엔 국립음대를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최민경은 그동안 솔리스트로서 실내악, 가곡 및 오페라 연주자, 찬양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민경은 현재 Laon Piano Society 대표, Concert Pianist,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가, 은향교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활동하며 부산예술고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작곡/조희주 • 오보에, 잉글리쉬혼/권성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회란기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중학생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연극, 뮤지컬, 창극, 오페라 등 장르를 불문하고 각색의 귀재로 불리며,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한국 대표 연출가 고선웅의 신작 '회란기'. 중국 원나라 때인 1200년대 중반, 극작가명성을 구가하던 이장부가 쓴 잡극을 원작으로한 '회란기'는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의 대표작인 '코카서스의 백묵원'의 원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 사회상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생생하게 표현하여 연극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연출가 고선웅은 긴장감 있는 극 전개를 택하는 대신 연희성을 살린 연출과 질펀한 입담으로 지루하지 않게 극을 끌어나간다.

2022 KPS 정기연주회 19세기 피아노 음악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뮤지카 기획 010-7742-0556



고신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구성된 KPS의 2022년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와 슈만, 멘델스존, 리스트, 슈베르트, 쇼팽, 부조니 등 늦가을 서정과 잘 어울리는 연주곡을 들려

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네손을 위한 헝가리안 댄스
슈만/아베크 변주곡 작품 1
멘델스존/판타지 올림반조 작품 28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제1번 등 수록

- 해설/박보경
- 연주/박보경, 이한나, 선아름, 김지연, 고태욱, 박민경, 신현희, 윤선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26주년 기념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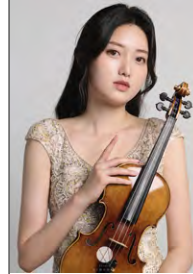
합창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에서는 경기 대안고, 부산 해동중, 해동중, 금정중, 범어사 소년소녀합창단 등 예선을 거쳐 통과한 5개팀이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인 대상을 놓고 경연을 펼친다.

‘파라미타’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아름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

황보배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황보배 010-7683-1134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깊이 있는 연주를 선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황보배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도독,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학위(Master of Music)를 취득한 황보배는 일찍이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부산대학교 협주곡의 밤 협연, 금정문화회관 신인음악회 초청연주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전문 연주자의 길로 들어섰다.

황보배는 귀국 후 디오 오케스트라 단원, 그라티아 앙상블 멤버로 앙상블 활동과 오케스트라 플레어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드뷔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

일 시 |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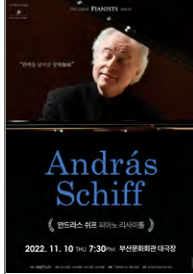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수어 퍼포먼스와 문자 통역까지 더해져 시각장애인인 소리만으로도, 청각 장애인인 보이는 것만으로도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예술총감독, 오페라 도슨트/정희정(KNN 아나운서)
- 연출/노이름 • 지휘/윤승업
- 소프라노/이윤경 • 테너/이범주
- 바리톤/최병혁 • 특별출연/테너 정찬우
- 성우/이선, 전승화, 배한성
- 수어/강에스터, 이정훈, 최요섭
- 해설수어/정미진 • 문자통역/한아름
- 연주/배리어프리 오페라 챔버 오케스트라

안드라스 슈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의 | ㈜마스트미디어 02-541-2512



완벽을 넘어 신의 영역을 들려주는 피아노의 거장 안드라스 슈프 내한공연. ‘바흐 해석의 권위자’, ‘피아니스트들의 교과서’,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안드라스 슈프는 69세의 나이에도 BBC 프롬스 등 세계 클래식계 가장 중요한 무대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다. 그 긴 세월 탐닉해온 음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이를 대중에 전달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음악학자인지, 음악가인지 규정짓기 어렵게 하며 상업화된 클래식 시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진실성과 성숙함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지휘자, 교육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안드라스 슈프는 한국 아티스트들과 깊은 인연을 쌓아가고 있는데, 무려 48년 전 차

이콥스키 콩쿠르 결선에서 만났던 피아니스트 정명훈과는 치열한 경쟁 이후 독특한 형제애를 쌓고 있으며, 2008년 마스터클래스로 만난 피아니스트 김선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루체르 페스티벌로 초대할 바 있다. 이외에도 조성진, 문지영, 김수연 등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그와 마스터클래스로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안드라스 슈프는 2008년 첫 내한공연 이후 여러 차례 내한하여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 꾸준히 최고의 음악을 선사해왔다. 화려함보다는 음악의 정수를 택하는 그의 무대는 ‘믿고 가는 안드라스 슈프’라는 강렬한 팬덤을 형성하며 매진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명징한 터치, 투명한 빛깔의 음색으로 오늘날 전 세계 관중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음악을 읽는 새로운 눈과 귀를 선사하고 있는 안드라스 슈프의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 이르는 고전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선보인다.



Turn Toward Busan UN 평화콘서트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공연시간 한시간 전부터 선착순 500명에 한해 티켓 배부, 좌석 지정 불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추모공연.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전 세계인들이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과 추모 행사를 갖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시작되어 매년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매년 '턴 투워드 부산'에 맞춰 열리는 UN 평화콘서트에서는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유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김덕수패 사물놀이, 소프라노 황신영, 테너 김우경, 소리꾼 박성희, 남성중창단 비바팬텀이 출연, 그들을 추모하는 무대를 갖는다.

- 사회/아나운서 손지현

부산 메세나 음악회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문 의 | 부산메세나협회 200-4612



부산 메세나 음악회
 BUSAN MEZENAT MUSIC HALL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의 동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부산메세나협회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 41개 회원을 비롯한 기업, 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부산에서 메세나 정신을 알리고 있는 부산메세나협회는 이번 무대를 통해 문화예술과 메세나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인 지휘자 정치용이 지휘하고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이끄는 대표 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과 창원시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합창단인 창원시립합창단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바그너/오페라 '로엔그린' 중 '전주곡과 혼례의 합창' 등 수곡

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서정적 살롱(The Lyrical Salon)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강소영 010-3645-7953



바로크 초기 작품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오스트리아 린츠 안톤 브루크너 음대 성악과 마스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소영은 귀국 후에는 독창 및 협연,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향하는 전환기의 후기 낭만파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세프 막스, 프랑스 작곡가 폴랑크의 가곡들을 들려준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일파가야금합주단 현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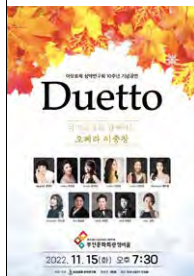
일 시 |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의 무대 '현의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아시아의 민족악기(중국의 고쟁, 양금과 대만 얼후, 몽골 부레, 우즈베키스탄 도이라, 루 밥)와 우리나라의 25현 가야금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현의 노래(이은경 곡)'를 시작으로, '세계로 가는 아기상어(곽재영 곡)', 가야금과 양금을 위한 25현 합주곡 '그리움' 등 다채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지난 1996년에 창단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현재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 가야금 연주 및 퓨전국악을 선보이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10주년 기념공연 Duetto

일 시 |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5897-0388



지난 2012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아모로제 성악연구회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 무대. 'Duetto(이중창)'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0년을 함께 해온 연주자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라보엠' 중 '사랑의 이중창' 등 오페라 이중창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예술총감독/정태미
- 소프라노/장은영, 권미현, 이지은, 김민성
- 메조소프라노/배주향, 박소연
- 테너/양승엽
- 바리톤/시명민, 유용준
- 피아노/김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BPO Odyssey: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 1인 4매)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을 맞아 교향악단을 거쳐간 원로단원들을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의 60년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무대.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원로단원들로부터 추억 가득한 작품들의 에피소드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 관객들과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역사와 추억을 되돌아본다.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101번 '시계' 중 3악장
 시벨리우스/핀란드어 작품 26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중 4악장
 하이든/교향곡 제45번 '고별' 중 4악장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BICmf) 2022 Pre-Concert 대전환 그리고 포용

일 시 | 11월 16일(수)~25일(금)
부산문화회관, 누리마루 APEC하우스
문 의 |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080-600-2030



2023년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BICmf: Busan International Classic Music Festiv)의 탄생을 알리는 'BICmf 2022 Pre-Concert'.

세계 주요 클래식 콘서트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부산 출신의 지휘자 오충근 예술감독을 필두로 한국인 최초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수석예술부감독을 맡고 전 스위스 톨랄레오케스트라 부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노부스파렛 멤버로 활동중인 비올리스트 김규현,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예술부감독으로 참여한다.

I. BICmf 챔버오케스트라
11월 16일(수) 오후 7:30 중극장
클래식 현악계를 이끌어온 대표 스승들이 펼치는 오프닝 무대.

- 바이올린/백재진(동의대 교수), 이경선(서울대 교수)
 - 비올라/김상진(연세대 교수)
 - 첼로/이명진(동아대 교수) • 하프/황세희
 - 연주/BICmf 챔버오케스트라
- 입장료/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II. BICmf 손민수독주회
11월 17일(목) 오후 7:30 챔버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의 무대로, 화려하고 현란한 기교가 돋보이는 리스트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들려준다.

- 입장료/VIP석 7만원, R석 5만원

III. BICmf 실내악
11월 19일(토) 오후 5:00 챔버홀
국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한국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시그니처 콘서트 무대.

- 피아노/손정범 • 바이올린/송지원
 - 비올라/신경식 • 첼로/이정현
- 입장료/VIP석 7만원, R석 5만원

IV. BICmf 솔로이스츠
11월 22일(화) 오후 7:30 챔버홀
늦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실내악 무대로, 클라리넷의 매력적인 소리가 다른 악기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감상할 수 있는 슈베르트의 대곡 '8중주 바장조 D.803'를 들려준다.

- 클라리넷/백동훈 • 비순/장형성
 - 호른/김형주 • 바이올린/한수진, 이우일
 - 비올라/김규현 • 첼로/이원해
 - 더블베이스/조용우
- 입장료/VIP석 7만원, R석 5만원

V. BICmf 스페셜콘서트
11월 25일(금) 오후 5:00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산의 특별한 명소인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리는 스페셜 콘서트.

첼리스트 송영훈과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으로 구성된 '4첼로·송영훈과 친구들이'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4대의 첼로로 특별한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 입장료/초대(초청자에 한해 관람 가능)

2022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음악교육, 원대한 꿈을 꾸다

일 시 |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010-7676-9124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음악교사 및 국악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모여 활동하는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지난 1993년 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 교사들이 결성한 '민족음악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을 모태로, 2004년 국악공연을 통한 음악저변확대를 위해 정식 발족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전통음악의 기반 위에 우리 음악이 올바르게 나아갈 바를 연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음악관을 심어주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지휘/류성식
- 대금/박진홍 • 장구/박종환

노엘합창단 창단 60주년 기념 제6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노엘합창단 010-8516-9822



창단 60년이 넘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긴 역사를 가진 민간합창단으로, 오랜 세월 부산의 합창음악 발전과 수많은 지역 성악가들의 산실 역할을 담당해온 노엘합창단(단장 변원탄) 창단 60주년 기념무대.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위촉작품으로 한국의 거장 작곡가 이영조 교수가 노엘합창단 6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한 '성서에 의한 세계의 합창곡'이 초연되며, 부산교사합창단, 부산하모니합창단, 부산지휘자합창단 등 3개 합창단과 함께 하는 대합창 무대도 펼쳐진다.

- 연주/축제오케스트라(악장 조현미)
- 협연/피아니스트 권준(고신대 교수)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문 의 |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 010-6418-9567



음악을 완성해가는 성취감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무대.

지난 2013년 창단 후 5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다 코로나19로 3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올해 새롭게 출발한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해운대치과의원 원장이자 부산의치대OB오케스트라 단원인 피아니스트 이지은의 협연으로 멘덴손과 하이든,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려준다.

- 단장/조은주
- 지휘/전진
- 피아노/이지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일 시 |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지난 2017년 '양상블 디토' 멤버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대니 구는 클래식 음악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대니 구는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원재연과 함께 우리나라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린의 대표 작품들로 관객들과 만난다.

첼리스트 이명로 제10회 독주회
Virtuoso Series II

일 시 |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연주 때마다 곡에 대한 해설로 관객과 항상 소통하며,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첼리스트 이명로 독주회. 체코 프라하 국립음악원 전액국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체코의 거장 첼리

스트 Miroslav Petras로부터 사사받은 이명로는 9차례 독주회와 체코, 한국에서의 오케스트라, 앙상블, 듀오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첼로 조곡 제3번', 리게티 '무반주 첼로 소나타',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등 감성적인 현대곡과 낭만곡을 비롯해 첼로가 선보일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의 연주곡인 카발레르시 '첼로협주곡 제2번' 등 화려한 테크닉의 곡들을 들려준다.

- 피아노/장하은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특강
전원경의아트살롱(그림콘서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

일 시 |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1:0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1만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결합된 그림 콘서트로, 미술과 음악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원경의아트살롱'. 계절별로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예술여행을 떠나는 '아트살롱'은 특히 도시의 예술문화와 작품이

탄생한 배경,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미술작품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 교수이자 예술전문 작가인 전원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이라는 테마로 화가 일리야 레핀, 이삭 일리치 레비탄, 마르크 샤갈의 그림과 차이콥스키, 글린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 피아노/김민정 • 바이올린/신효은
- 소프라노/김유진 • 반주/이승윤

부산시립극단 제73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일 시 |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대를 앞서 간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극단의 음악극. 이번 공연은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 무대와 조명, 영상의 결합, 그리고 무용, 연기의 결합을 시도한 실험극으로, 지난해 12

월 열린 초연무대를 통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관객들로부터 호평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무대에 이어 또다시 무대와 객석이 자리한 대극장 위 원형무대에서 펼쳐진다.

- 대본, 작곡/백현주
- 대본, 연출/김지용(예술감독)
- 안무/홍충민 • 지휘/전진
- 합창/나주시립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아버지

일 시 |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2006년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히서연극상-기대되는 연극인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동아연극상-작품상, 희곡상, 연기상(고수희),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화

제를 불러일으켰던 극단 골목길의 '경숙이, 경숙아버지'.

올해 극단 골목길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는 이번 작품은 현시대에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가족이 등장하여 관객을 울리고 웃긴다.

- 작, 연출/박근형

박지수 더블베이스 귀국 독주회
Reverie

일 시 |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지수 010-6513-1926



KNN 방송교향악단 단원이자 앙상블 클라쥬, 대구 르네상스 앙상블, 무지카비바 멤버로 활발한 활동 중인 더블베이스리스트 박지수 귀국 독주회.

박지수는 계명대학교 음대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과정 (Master)을 졸업하고 모리츠부르크 음악제 (Moritzburg Musikfestival)에 참가했으며, Staatsphilharmonie Nürnberg에서 Akademie 단원, Dresdner Philharmonie에서 고정객원단원으로 활동했다.

프로그램

보테시니/Reverie
힌데미트/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피아졸라/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를 위한 3개의 탱고 등

제27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문 의 | 부산플루트앙상블 010-2459-4147

지난 1992년 11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플루트앙상블은 부산 최초 플루트 전문 실내악단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플루트 주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윌리엄 보이스의 '심포니 제1번'을 시작으로 이타루 사카이 'Good morning', 차이콥스키 '안단테 칸다빌레', 워렌 바커 '디베르티멘토', 그리고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연주/박찬영,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도진경, 이진향, 장정림, 김보민



소프라노 김시윤 독창회

일 시 |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매니저먼트 이랑 010-9338-8485



지난해 4월 귀국독창회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소프라노 김시윤 독창회.

김시윤은 경성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라티나 국립음악원 O. Respighi (Biennio) 최고연주자와

정과 로마 국제 AIDA 아카데미아 전문연주자 및 발성법 코치 최고과정, 로마 국제 A.R.A.M 아카데미아 오페라 해석과정, 로마 국제 Clivis 아카데미아 어린이 합창지휘과정, 로마 국제 Morinari artcenter Teatro 오페라 연출과정을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국제음악콩쿠르 'I giovani e l'arte' 3등, Fcilea 1등, Mercato S.Severino 3등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신세라

바로크 앙상블 동백 창단연주회 음악의 정원 시리즈 동백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바로크 앙상블 동백 050-6759-3667



시대 연주의 정확한 연구, 연주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에서 대표되는 고음악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단한 바로크 앙상블 동백의 창단 연주회.

가장 아름다울 때 땅에 떨어지는 동백처럼 바흐의 죽음으로 갑자기 막을 내렸던 바로크를 상징하기 위해 이름붙인 바로크 앙상블 동백은 앞으로 동백의 도시 부산에서 바로크 음악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 소프라노/박현진, 김민혜
- 카운터테너/김대경 • 테너 한은빈
- 베이스/박순기
- 바로크/바이올린 최윤정, 김민경
- 비올라 라 감바/강효정
- 포지티브 오르간/아렌트 흐로스펠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세계로 떠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4회 정기연주회.

지휘자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객원지휘자 윤한결이 지휘하고 원숙한 음악성과 인간애의 조화로 예술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 지휘자 윤한결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회 KSO국제지휘콩쿠르'에서 2위 입상한 바 있다.
- 지휘/윤한결 • 바이올린/임재홍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화 속 감미로운 OST로 시간 속에 갇힌 우리의 추억을 재소환하는 감성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이번 무대에서는 이루지 못한 옛사랑을 다룬 두 편의 영화 속 가장 아련하고 애뜻했던 장면을 오케스트라가 빛어내는 라이브 선율로 감상하며 차갑고도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정과 기억을 마주할 수 있다.

음악감독 안두현이 지휘하는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이현진, 첼리스트 박건우, 기타리스트 김진택 등이 출연, 두 작품의 주옥같은 명곡들과 명장면을 테마별로 재구성하여 라이브 연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별 우수한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이번 무대에서는 첫 주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임홍균 악장이 통찰력 있는 음악성과 견고한 연주로 주목받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홍민수와 함께 슈베르트, 코른골트, 루트소와프스키, 프랑크의 대표적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37 중 제3번
 코른골트/‘햇소풍’ 모음곡 중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곡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부산시민회관

KNN방송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교향곡 마스터피스 시리즈 멘델스존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지난 2016년 창단된 후 부산, 경남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KNN방송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초기 낭만파 시대의 음악가 멘델스존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비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지휘자 정치용이 지휘하고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김다미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를 들려준다.

- 지휘/정치용(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 피아노/김다미(서울대학교 교수)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 음악회 동행III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자원봉사포럼 010-2026-8280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 음악회 '동행III'.

지난 2015년 '자원봉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타이틀로 국내 최초 자원봉사 초청 위로음악회를 개최한 후 2019년 '동행I', 2021년 '동행II'에 이어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지휘 및 해설과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부산RCYO케스트라(지휘/최준호), 반도네온 김종완, 가수 이재준, 강대혁의 협연으로, 한국가곡 100주년을 맞아 오케스트라를 위한 가곡 '동무생각', 동요 '반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는 자원봉사자 및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2022 부산국악축제
우리 모두를 위한大同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문의 | (사)부산국악협회 644-5211



우리 전통국악의 멋과 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부산국악협회 '2022 부산국악축제'.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과 창작, 소리와 춤, 음악이 하나되어 온 세상의 번영과 화평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시조 '우시조', 가야금 병창 '골매타령, 통영개타령, 풍년노래', 선소리 '경기뒗산, 잣은산타령', 서도소리 '난봉가, 자진난봉가, 연평도 난봉가, 사설 난봉가, 남도민요 '물레타령, 강강수월래, 경기민요 '좌창 제비가, 매화타령, 양산도, 자진방아타령', 판소리 '토끼 인당수에 빠지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예술집단C 토끼의 시간

일 시 | 11월 9일-10일 수-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탈장르적이고 비언어적인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예술집단C가 선보이는 '토끼의 시간'. 이번 작품은 다양성이 무시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토끼들의 모습으로 의

인화하여, 토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각자의 시간을 찾아가는 따뜻한 여정을 그린 신체극이다. 예술집단C는 지난 2014년 창단 후 다장르 아티스트들 간의 수평적인 협업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형 융·복합 공연을 기획·창작해오고 있다.

- 연출/황지선
- 출연/전성호, 이혜수, 천권준, 이혜영, 김여진, 한상훈, 이인우, 이보미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지브리 스튜디오의 모든 음악을 작곡한 히사이시 조의 다양한 작품들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 연주와 다양한 협연으로 선보이는 영화음악 콘

서트. 명실상부 뛰어난 연주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리더십과 예술적 감각으로 그들을 이끄는 김재원 예술감독이 또 한 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 피아노/김재원
- 연주/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바이올린/김영준 • 오보에/고관수
- 첼로/배성우

제3회 박종철 합창단 연주회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일 시 |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단장 윤지형 010-3413-1196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노래로써 선양해온 박종철 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6년 8월 창단한 박종철합창단은 그 해 12월, 서면 촛불집회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박종철 열사 추모식, 세월호 추모문화제, 6월 민주항쟁 기념식,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5·18 기념식 등 부산과 서울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식과 추모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에서 노래를 불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 게스트로 민중가수 '우창수&김은희', '노래노래', 소프라노 김나정이 함께 한다.

- 지휘/이민환 • 반주/김현정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 발레 갈라 Fly Higher with KNB

일 시 |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48개월 이상 입장,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발레리나를 꿈꾸는 꿈나무들의 아름다운 도전,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Fly Higher with KNB'.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발레단이 함께 추진한 '꿈나무 교실'의 일환으로, 부산시 거주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Fly Higher with KNB'는 올해 4월부터 매주 2회씩 부산시민회관 연습실에서 발레의 기초동작을 배우며 발레리나로서의 소중한 꿈을 키워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꿈나무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돈 키호테' 등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과 모던발레 'Are you as big as me?', 'Ballet 101' 등 다양한 갈라작품으로 국립발레단이 함께 한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부산영산재 시연회

일 시 |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영축사 010-5511-7000



부산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불교 의식으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부산영산재 시연회. 부산영산재는 통도사와 범어사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왔으며, 유래·구성 및 진행 절차가 독자적이고 소박하며, 작법무(作法舞)도 춤의 구성이 특이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영산재 전수교육조교인 원산스님의 '작법'과 혜화스님의 '바람춤', 영산재 이수자들의 '작법무', 그리고 진도복춤, 승무 등 우리의 전통춤을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 해설/박동국
- 구성기획/혜화스님(부산영산재 전수교육조교)
- 특별출연/김영옥(화계김영옥무용단 단장)

황지인(예술공동체 예인청 대표)

제17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일 시 |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사전 예매자에 한함)
 문 의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853-0429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매년 마련하는 제17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는 장기 기증 및 생명가치를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그동안 따뜻한 사랑의 작은 나눔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석스님의 사회로 영남불교무용단, 동림소년소녀합창단, 가수 김국환이 출연,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BIMF 부산인터내셔널 뮤직페스타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2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대중음악 축제의 장 '2022 부산인터내셔널뮤직페스타'.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시민친화적인 공연으로, 재즈와 락 그리고 팝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제의 마당이다. 축제 첫날인 11월 26일에는 재즈밴드 SGM과 재즈 보컬리스트 시호,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최백호가, 둘째날인 11월 27일에는 다국적 연주밴드 One Drop East와 라틴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GETZ, 싱어송라이터 안수지 그리고 불후의 국민가요 '아파트'의 주인공 윤수일이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춤을 말하다

일 시 |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연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11월 상영회에서는 한국 전통춤, 현대무용, 발레, 스트리트댄스 등 각분야의 무용가들이 출연하여 춤과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의 무용을 되짚어보는 렉처 퍼포먼스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상 '춤을 말하다'를 상영한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내 최고의 무용수 다섯 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춤꾼들의 깊이있는 춤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경희댄스시어터 우물가의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3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그동안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는 현대무용 작업을 펼쳐온 경희댄스시어터의 창작무대 '우물가의 살인사건- 그곳엔 사람이 산다'. 이번 작품은 일제강점기, 회동수원지댐 건설공사(1940-1942)로 논밭과 집이 수몰되어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담은 창작무대이다. 지난 2016년에 창단한 경희댄스시어터는 안무자 박재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단체만의 색깔과 개성 있는 움직임으로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 연출, 안무/박재현

음악

제1회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일 시 | 10월 29일(토)~11월 26일(토)
 무사이, 나눌락, 게네랄파우제, 스페이스 움, 음악당 라온, 오션컬처팩토리, 필슈파스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문화예술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민간운영체의 소공연장 대표들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반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개공간으로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11월 한달간 열리는 이번 페스타에서는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 회원공연장인 무사이, 나눌락, 게네랄파우제, 스페이스 움, 음악당 라온, 오션컬처팩토리, 필슈파스 등 6개 공연장에서 독주 및 앙상블, 독창, 재즈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2일(수) 오후 3:00 스페이스 움 더하우스콘서트 대표 박창수 초청 세미나
- 4일(금) 오후 7:00 음악당 라온 도넛트리오 창단연주회 '첫번째 선물'
- 4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움 비타민 콘서트
- 4일(금)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강해인퀸텟 'Michael Jackson Tribute'
- 5일(토)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이달현트리오 'Little Wing'
- 5일(토) 오후 7:00 필슈파스 슈아브앙상블
- 6일(일) 오후 8:00 필슈파스 앙상블 KLAON 정기연주회
- 9일(수) 오후 4:00 나눌락 앙상블 툰
- 10일(목)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숲앙상블 'Fall in SORISOOP'
- 11일(금) 오후 7:00 음악당 라온 Romance for 뽀빠로데이
- 11일(금)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서민진 Jazz Blossom
- 12일(토)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무지카아니베가 들려주는 Playlist-for Love
- 18일(금) 오후 7:00 음악당 라온 나눔플루트 앙상블 'The Sound of Golden Light'
- 18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오페레타의 밤
- 18일(금)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G. P. Classic

- Ensemble '다시, 게네랄파우제'
- 19일(토)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최은아트리오 'Fin de l'automne(늦은 여름)'
- 19일(토) 오후 7:00 필슈파스 유니클라앙상블
- 21일(월)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에델현악사중주단 '슈만의 어린이 정경'
- 23일(수) 오후 8:00 나눌락 앙상블 툰
- 25일(금) 오후 12:30 필슈파스 [정오의 선물] 커피와 함께하는 필슈파스 상설공연
- 25일(금) 오후 7:00 음악당 라온 테너 허동권 독창회 'The night of the Opera'
- 25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솔로이스츠 연 '어머니의 죽음'
- 25일(금)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현악사중주 Bridge의 첫 번째 콜라보 프로젝트 with Ensemble Analysis
- 25일(금) 오후 8:00 필슈파스 [Salon Night Concert] 와인과 함께하는 필슈파스 상설공연
- 26일(토) 오후 2:00 오션컬처팩토리 홍영호 퀸텟 'Fall in Jazz'
- 26일(토) 오후 3:00 게네랄파우제 유지훈의 마티네콘서트
- 26일(토)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허쉬밴드 재즈스토리 콘서트 '나의 인간태양계'
- 26일(토) 오후 7:00 무사이 이사홀 라이브 '오늘, 사할'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합창으로 만나는 가을연가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부산시립 예술단이 마련한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합창으로 만나는 가을연가'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내외 가곡 및 가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Northern Lights(올라 야일로), Only in Sleep(에릭 에센발즈), 꽃구름 속에(이흥렬), 희망(김동률), 가을편지(김민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김광석) 등 수곡
 • 지휘/임희준

이주애 개인작품발표회 저고리를 짓다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이주애 010-6577-3255



한국작곡가회(작악회) 회장과 김국진한국음악 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인 작곡가 이주애의 작품 발표회.
 부산 출신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한 이주애는 1991년 작악회 창립 후 지금까지 작악회를 통해 가곡과 기악곡, 악보집 등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부산작곡가협회, 한국창작가곡협회, 한국작곡가협회, 한국동요사랑협회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승인故 김국진 선생의 한국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작곡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계면조와 평조의 화음 멜로디를 전한다.

심하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심하정 010-3284-9428



더 블로섬 대표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피아니스트 심하정 독주회.
 심하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뉴욕주립대학교 석사 및 연주자과정,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외 다수 독주 및 실내악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 그들의 작품을 알리고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

프로그램
 클라라 슈만/피아노 소나타 사단조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샤콘느
 권유미/찰나의 순간
 패니 멘델스존/한 해(Das Jahr)

BCMS 앙상블 여행의 노래

일 시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당일 현장판매)
 문 의 | BCMS 앙상블 010-3156-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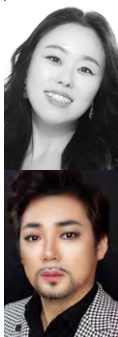
지난 2018년, 부산의 예술적 중흥과 클래식 음악의 보편화를 기치로 창단한 후, 완성도 높은 실내악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BCMS 앙상블의 무대. 본 윌리엄스의 그리움 가득한 늦가을 서정부터 차이콥스키의 설레이는 따스함까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가을 감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보로딘/현악6중주 라단조
- 본 윌리엄스/현악5중주 단단조
- 차이콥스키/현악6중주 작품 70 '플로렌스의 추억'
- 바이올린/임재홍(음악감독)
- 비올라/김은진(대표), 김유리, 나윤채
- 첼로/이동열, 정지은
- 피아노/김정권 • 더블베이스/박지수

제42회 짜장콘서트 한국민요의재발견2:편작음악회

일 시 |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3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지난 5월에 이어 마련하는 '한국 민요의 재발견' 두 번째 무대 '편작음악회'. 편작(編作)이란, '편곡'과 '작곡'의 합성어로 기존 음악의 단순한 편곡을 넘어서서 작곡자의 풍부한 상상력과 작곡기술을 총망라한 음악을 뜻한다.

- 이날 무대에서는 아우라지(백승태 편작), 도라지타령(박미선 편작), 방아타령(진소영 편작), 군밤타령(권태우 편작), 밀양아리랑(최석태 편작), 옹헤야(박규동 편작) 등 한국 민요 주제에 의한 기악 변주곡들과 더불어 한국 민요를 편곡하거나 민요풍으로 창작한 노래를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 민요가 가진 맛과 멋을 전한다.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김준연
 - 연주/앙상블 프로무지카 • 진행/이진이

리브레 앙상블 제2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리브레 앙상블
 010-2560-1493, 010-9268-0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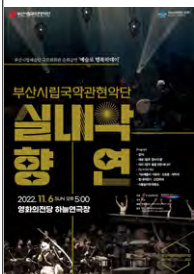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정효인, 임미진, 트롬보니스트 신성환으로 구성된 리브레 앙상블의 두 번째 무대. 올해 2월, 신라대학교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단한 리브레 앙상블은 바쁜 삶 속에서도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리브레 앙상블만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떨어지는 낙엽을 연상시키는 베토벤과 슈베르트 그리고 트롬본 소나타로,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마르첼로/트롬본 소나타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작품 27 '월광'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작품 143 D.784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문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실내악 향연

일 시 | 11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사전 예매)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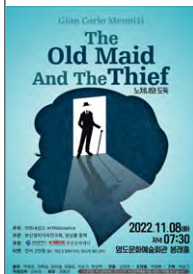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부산시립 예술단이 마련한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실내악 향연'에서는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국악의 멋과 신명을 전한다.

프로그램

- 컵타, 해금 3중주 '문어의 꿈'(안예은 곡), 피리 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박범훈 곡), Fly to the Sky, 가요메들리 '아로하-신호동-네박자', 범 내려온다-난감하네, 사물놀이와 태평소

블랙코미디 오페라 노처녀와 도둑

일 시 |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및 장애우 50%, 영도구민 30% 할인)
 문 의 | 아트내상스 010-9204-5854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최초의 라디오를 위한 오페라 '노처녀와 도둑'. 이탈리아계 미국인 작곡가 잔 카를로 메노티가 대본을 쓰고 작곡한 단막 오페라로, 지난 1939년 4월, NBC 라디오에서 초연되었으며, 2년 후인 1941년 2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노처녀와 도둑'은 작곡가 메노티가 미국의 소도시 술집에서 우연히 들은 스캔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으로, 노처녀 '미스 토드'의 집에 준수한 외모의 부랑자 '밥'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고 있다.

- 기획/박순기 • 연출/김대경
- 소프라노/박현진, 최해실, 김민혜
- 바리톤/유용준

아리랑이 진도복을 만나다

일 시 | 11월 9일 수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 의 | (사)아리랑보존회 부산지회
 010-2036-9110



한민족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우리 고유의 아리랑을 발굴하는 등 아리랑의 전승 및 보존에 힘쓰고 있는 (사)아리랑보존회 부산지회가 마련하는 '아리랑이 진도복을 만나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으로 있는 명창 김영임과 (사)아리랑보존회 회장이자 진도복놀이 이수자 송해경, (사)아리랑보존회 부산지회 서영숙을 비롯한 (사)아리랑보존회 회원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선유가, 아리랑-해주아리랑-밀양아리랑, 회심곡, 한국무용 '관음무', 한오백년-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복놀이 등

2022 을숙도 힐링콘서트 우리소리, 가을의 향연

일 시 | 11월 1일-4일 화-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우리소리의 향연으로 펼쳐지는 2022 을숙도 힐링콘서트. 명인, 명창의 무대에서부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양금양상을 무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가 해설 및 진행을 맡아 각 공연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 1일(화) 영남 명창·명인 가을의 향연 초청전
- 2일(수) OLD&NEW 금암 김병호 원가락 프로젝트
- 3일(목) 청춘 이색, 絃·打
- 4일(금) 양금양상을 합동콘서트-Friends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3회 정기연주회 Romantic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창단 후 매년 40여 회에 달하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온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클래식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첼리스트 송영훈이 협연자로 출연, '근대 첼로 협주곡의 황제'라는 별명을 지닌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과 바그너, 말러, 쇼스타코비치와 함께 클래식 애호가들이라면 꼭 한번 듣게 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 'Romantic'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상임지휘자/홍성택

컨템포러리 여성중창단 플루토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컨템포러리 여성중창단 플루토
 010-8546-0204

소프라노 최은영(단장), 최은지, 앨토 최수미, 백경희 등 부산지역 합창단 출신의 여성 4인으로 구성된 컨템포러리 여성중창단 '플루토'의 무대. 지난 2019년 창단한 플루토는 기존의 국내외 대중음악, 민요, 가곡 그리고 자작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와 더불어 현대음악과 재즈가 반영된 순수 오리지널 편곡으로 플루토만의 독특한 컬러를 만들어내고 있다. 펜데믹으로 미루어졌던 플루토의 첫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윤종률(콘트라베이스), 심재호(기타), 한상우(보컬, 퍼커션) 등 버클리음대 출신의 연주자들과 함께 앨범에 수록된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부산오페라 2022 정기연주회 '독일 가곡 시리즈' 3부작 No. 3 베토벤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4만원, 청소년 2만원
 문 의 | 부산오페라 010-7269-8776



부산오페라가 상반기 '프랑스 가곡 시리즈'에 이어 하반기 세 차례 마련한 '독일 가곡 시리즈' 마지막 무대.

1부 '불멸의 연인', 2부 '독일인의 사랑'에 이어 3부 '멀리 있는 연인에게'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강동진, 피아니스트 조경진의 연주로, 연가곡의 시초라 여기는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An die ferne Geliebte 작품 98)' 전곡과 '연인들이 헤어지려 할 때(Als die Geliebte sich trennen wollte, WoO 132)'를 들려준다.

- 테너/강동진 • 피아노/조경진

경성반주 소사이어티 제2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앙상블&오페라 갈라 리골레토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경성반주 소사이어티 010-5160-4402



경성대학교 교수 및 강사, 대학원 반주과 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경성반주 소사이어티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벨리니 '카롤레타와 몬테규가' 서곡, 비제 '카르멘 판타지', 로시니 '세비아의 이발사' 등 피아노 듀오로 들려주는 오페라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갈라무대가 펼쳐진다.

- 피아노/최윤희, 안준희, 김슬기, 김여원, 김태희, 라다솔
- 소프라노/박소영, 이수진
- 테너/김정권, 최대우

제87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바로크시대의 협주곡 콘서트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개관 10주년이던 지난 2011년부터 선보여온 을숙도문화회관의 대표적인 브랜드공연 '을숙도 명품콘서트' 11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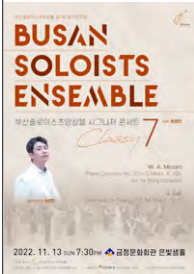
'바로크시대의 협주곡 콘서트'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가 출연, 바흐, 텔레만, 비발디 등 바로크시대의 음악을 소개한다.

지난 198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창단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24차례 정기연주회와 협주곡의 밤, 초청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왔다.

- 총예술감독/임병원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시그니처 콘서트 7 with 송영민

일 시 |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010-8524-0069



‘젊은 음악, 새로운 시도,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이라는 슬로건으로 열정 넘치는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솔로이스츠 앙상블 정기연주회.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팝, 탕고,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2016년부터 정기연주회인 ‘시그니처 콘서트’ 시리즈를 시작, 그동안 6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요세프 수크 ‘세레나데 작품 6’을 들려준다.

- 리더, 바이올린/정현진 • 협연/송영민(피아노)

제33회 이건음악회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 내한공연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건음악회 eagonblog.com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 공헌에 앞장서온 종합건축자재 전문 기업 이건(EAGON)이 지난 1990년부터 매년 마련해온 이건음악회 2022년 무대.

올해 무대에서는 독일의 명문 실내관현악단인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이하 WKO)을 초청, 서울과 인천, 부산, 통영 등지에서 6차례 공연을 갖는다. WKO는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살린 역동적인 연주 스타일과 독창적인 사운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정상급 챔버 오케스트라로, 이번 무대에서는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들 마이클 바렌보임이 바이올린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 지휘/케이스 스칼리오네

2022 대한민국우크라이나국제교류음악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체르니우치 챔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 콘서트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난 20년간 우크라이나와 국제교류음악제를 진행해온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그동안 국제교류음악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자로리자, 크멜리니츠크, 리보브, 체르니우치, 부코비니안 교향악단의 수석 주자 및 출몰이 가능한 연주자로 실내악단을 구성, 평화기원 음악회로 꾸며진다.

- 지휘/김현국
- 바이올린/프리히트 안젤라
- 첼로/하바타 디아나 • 반도네온/김종완
- 테너/조윤환 • 피아노/이상비

(사)더 솔로이스츠 부울경 메가 시티 순회공연

일 시 |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사)더 솔로이스츠 010-8277-9765



(사)더 솔로이스츠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 김해, 울산에서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 순회공연.

11월 2일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시작으로 11월 19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11월 22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진주의 원로이자 진주국제음악제의 주인공 곁 이상근 선생을 필두로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지낸 작곡가 김한기, 밀양 출신으로 부산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하순봉, 울산의 원로 작곡가 우덕상 선생 등 부울경 작곡가 4명의 창작곡을 20인조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준다.

제39회 부산창작관악축제

일 시 |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관악협회 010-6886-5896



부산 관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관악인들이 함께하는 제39회 부산창작관악축제. 부산관악 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부산창작관악축제는 그동안 아름다운 선율과 위풍당당한 웅장함을 보여주는 창작

관악곡들을 소개해오고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 작곡가 김종완의 창작곡 ‘동행·출항(出港)’을 부산관악협회 BBA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 튜바 박채린, 호른 한정원, 색소폰 홍성민 등 차세대 연주자들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 지휘, 해설/정두환
- 연주/부산관악협회 BBA윈드오케스트라
- 작곡/김종완 • 튜바/박채린
- 호른/한정원 • 색소폰/홍성민

콘체르탄테 오페라 장보고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8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문 의 |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0507-1330-3001
 아르떼협동조합 988-3087



낙초 금수현 서거 30주기를 맞아 마련한 창작오페라 ‘장보고’ 한국 초연 무대.

가곡 ‘그네’로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음악가이자 지휘자 금난새의 아버지이기도 한 금수현 선생은 김해에서 태어나 동래여고, 경남여고에서 음악을 가르쳤으며, 아리아, 동요, 가곡, 기악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지난 1991년 5월에 완성한 오페라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 동양 3국에 무역을 열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청해대사 장보고의 삶을 담은 창작오페라이다.

- 대본, 작곡/금수현 • 총예술감독/윤장미
- 연출/김성경 • 지휘/장병혁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제22회 정기연주회 가을과 겨울 그사이

일 시 |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과 부산, 창원, 울산, 포항시립 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상임지휘자 박성음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오그라드 주네스 국제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3위,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세계적인 현악 앙상블 그룹 '노부스카르렛'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스트 김영욱의 협연으로, 영도대교를 주제로 한 작곡가 김수진의 창작곡 '영도대교'를 시작으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를 들려준다.

제29회 동요사랑페스티벌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국동요사랑회 010-3864-9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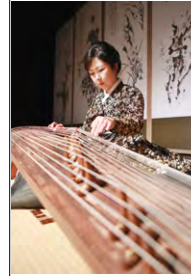
한국동요사랑회(회장 류지원)가 매년 마련하는 동요사랑페스티벌 2022년 무대.

그동안 동요 부흥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동요사랑회는 매년 30여 곡의 창작동요를 작곡, 학교와 방송곡에 보급해오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동요 속에서 예쁜 꿈과 희망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동요사랑페스티벌을 통해 창작동요 발표회, 음반 제작, 악보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나무들이 쓴 일기장'이라는 부제로 작곡가 신진수, 류지원, 우덕상과 작사가 선용 등이 출연한다.

제12회 허희성 가야금 독주회 강태홍류가야금산조

일 시 |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허희성 010-8951-5002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가야금주자 허희성 독주회.

허희성은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영남대학교 음악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제1회 전국 가야금대회(고령) 일반부 은상, 제15회 부산국악대전 기악 부문 장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허희성 가야금 정악II 평조회상', '허희성 가야금 정악II 현악영산회상'을 출반했다. 이번 무대는 그의 스승으로, 지난해 작고한 부산대학교 백혜숙 교수를 추모하기 위한 무대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 장구/구한석

영도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Jazz on the Breeze 이한얼 트리오 콘서트x조해인

일 시 |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난 2015년 데뷔 앨범 'Unwissend'를 통해 작가주의적 피아니스트로 주목받았던 이한얼이 베이시스트 김도영과 드러머 김종현과 함께 결성한 이한얼 트리오와 재즈 보컬리스트 조해인이 함께하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이한얼 트리오가 이전에 발표했던 곡들과 또 앞으로 발표될 곡들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생각하고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Yul's Blues, Fly me to the moon, Night and day 등 수곡

연극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일 시 | 9월 22일(목)-202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평일 1만5천원, 주말·공휴일 1만8천원)
 문 의 | 쉼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기구라는 명칭이 무색하지만 큼 파리만 날리는 사파리 익스프레스. 어느 날 멸종위기의 나무늘보 수컷이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되면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파리의 암컷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사파리익스프레스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에 승진을 꿈꾸는 구해호와 포상금으로 영화감독 꿈을 노리는 정대성, 동물들의 대모를 꿈꾸는 손희영, 그리고 갓 입사한 막내 온라인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무늘보의 짝짓기 의지를 불태우는 데... 과연 이들은 짝짓기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은결 '더 일루션-마스터피스'

일 시 |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2:00, 6:30, 20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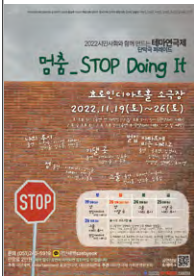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가대표 매지션이자 '일루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무대. 이은결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대 그랑프리 수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가진 라스베가스 공연을 비롯

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더 일루션'은 이은결의 26년 내공을 총 집약한 국내 최대 스케일의 퍼포먼스로, 1,000회 이상 공연, 누적 관객 100만명을 넘기며 10년 넘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트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팀과 함께 제작하여 영화와도 같은 장면을 선보인다.

2022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테마연극제 멈춤_Stop Doing It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20일 일요일 오후 2:00, 5:00,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2:00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예약 필수)
 문 의 | 극단 새벽 245-5919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를 깊이 살펴 이를 참가자들이 직접 연극 대본으로 창작, 무대에 올리는 '교육-창작-공연'이라는 과정 중심의 연극제이자 시민참여 연극제인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테마연극제'.

지난 2020년 첫발을 내딛은 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멈춤_Stop Doing It'을 테마로, '나의 루시', '기밀 곳', '벌집 아파트에 비는 내리고', '섬', '그물' 등 다섯 편의 단막극과 함께 그림 전시, 영상물, 제로웨이스트 토요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 극작/공동창작(2022 테마연극제 참가자들, 변현주, 정선옥)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

일 시 | 11월 22일(화)-2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부산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역대 최다 12개 부문 노미네이트, 역대 최다 8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의 신화 '엘리자벳' 1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후였던 '엘리자벳'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죽음(Der Tod)'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역사적 사실에 판타지적 요소를 결합시킨 매력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테디셀러 대작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초연 당시 15만 관객을 동원하며 매 시즌 관객들의 폭발적인 사랑과 함께 매진신화를 이어오고 있다.

뮤지컬 삼총사

일 시 | 11월 27일(일)-12월 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6:30(월요일 공연 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클로벌컨텐츠 1577-3363



2018년 10주년 공연 후 4년 만에 돌아온 K-뮤지컬 '삼총사'.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의 대표작 '삼총사'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뮤지컬로, 17세기 프랑스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전설적

인 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가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무대와 다이내믹한 검술 장면,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All for Love'를 테마로 한 감미로우면서도 웅장한 음악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내 뮤지컬 시장의 스테디셀러는 물론 대표적인 한류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무용

신예담무용단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춤 이야기 전통과 창작의 하모니

일 시 |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예담무용단 010-5473-324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강선영류 태평무 전승자로 있는 춤꾼 신예담이 이끄는 신예담무용단의 여덟 번째 춤 이야기.

신예담은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40회 전국무용예술제 종합대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승인 권명화 선생으로부터 지도받은 대구살풀이와 고틀이춤, 지전춤, 입춤, 한량무, 소고춤 등 다양한 전통춤과 강선영류 태평무, 그리고 2003년 초연된 후 2019년 재구성한 창작춤 '선살풀이' 등 다채로운 춤사위를 선보인다.

- 예술감독, 안무지도/신예담
- 해설/배현열 • 특별출연/김현태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공연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 신데렐라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부산발레시어터의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 신데렐라.

부산발레시어터는 지난 2014년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그동안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부터 클래식 전막발레까지 폭넓은 작품활동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전 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 최지원, 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김희현과 부산발레시어터 단원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프로코피예프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발레극에 맞게 연출된 친숙한 스토리로 꿈과 희망, 감동을 선사한다.

2022 BIBA 부산국제발레협회 BIBA 주니어 발레단 발레 콘서트

일 시 |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5천원(5세 이상 관람, 10인 이상 단체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BIBA 주니어 발레단 010-4037-9744



부산지역 발레 새싹들로 구성된 BIBA 주니어 발레단의 발레 콘서트.

오프닝 무대 '발레하는 악동들'에 이어 1부에서는 다이애나 약테온, 해적, 탈리스만,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2인무 그랑 파드류로 꾸며지는 발레 갈라 콘서트다, 2부에서는 프랑스 태생의 제정 러시아 무용가인 페티파가 1881년에 안무한 2막 3장의 로맨틱 발레 '파키타'를 선보인다.

행사

11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79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11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관현악,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브레겐츠 실황 및 인기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평일 감상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금요일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 4일(금) 모차르트 '마술피리'
- 11일(금) 로시니 '신데렐라'
- 18일(금) 푸치니 '투란도트'
- 25일(금) 푸치니 '나비부인'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포레 '레퀴엠'
-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 쇼팽 '녹턴과 마주르카'
- 스트라빈스키 '시편 교향곡', 레하르 '금과 은 왈츠'

줄리아니 '기타협주곡', 드보르작 현악4중주 '아메리카'

제180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가을 주제 詩낭송회

일 시 |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詩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김승희시인 외 초대시인 이석봉, 신항원
- 초청성악가/테너 김정민

1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7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7일(월) 오후 7:00 황연정의 초록식탁 영화 속 음식 이야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강사/황연정(푸드 디자이너, 초록식탁 대표)
- 14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 미니시어터 스크린으로 만나는 아티스트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 강사/배정선(시네필리아, 아트디렉터)



17일(목) 오전 11:00 시인과 함께하는 낭송과 낭독 그리고 詩수다 '녹턴'(김선우 著, 문지사, 2016)

- 21일(월) 오후 7:00 와인과 고음악
- 강사/박창호(고음악 평론가) *사전 예약

28일(월) 정해성의 문화공간 '고야와 그라나다스' '고예스케스(Goyescas)'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라움Y 대표)

예필의 종합대중예술 렉처콘서트(5) 그리스 음악과 그리스 미술의 어울림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1관
 입장료 | 초대(예약순 마감)
 문 의 | 예필 최정욱 010-3853-6634



음악, 미술, 영화 3분야 동시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그리스 예술기행. 음악, 미술, 영화, 詩,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 그리스 영화/그리스인 조르바(Zorba The Greek), 1964, 미카엘 카코야니스 감독
- 그리스 음악/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격정은 무엇인가? 등 12곡
- 그리스 미술/오디푸스와 스피르크스(Oedipus and the Sphinx, 1864, 구스타브 모로) 등 6점
- 그리스의 詩/기억 1(Memory 1, 요르기오스 세페리스·1963년 노벨문학상 수상)

전시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II

일 시 | 9월 2일(금)-12월 4일(일)
동구 문화플랫폼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만 6세 미만 어린이 무료)
 문 의 | 부산동구청 465-4070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와 1970-1990년대를 풍미했던 영화를 소재로 작업해온 맥스 달튼의 이번 전시는 총 3막으로, 제1막 '우리가 사랑한 영화의 순간들'에서는 영화 역사에서 손꼽는 명작들을 맥스 달튼의 미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일러스트 작품을, 2막 '맥스의 고유한 세계'에서는 그가 일러스트로 참여한 그림책 '외톨이 공중전화기'를, 제3막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는 전설의 락 밴드와 재즈 뮤지션들에게 헌정하는 LP 커버 디자인을 소개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일 시 | 7월 15일(금)-2023년 3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2690



우주를 조각하다-문신의 예술세계

김영호 지음 / 한길사 / 2만3000원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文信:1922~1995)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융합과 조화의 미학을 다룬 책. 문신 예술의 핵심은 시메트리(Symmetry)이다. 대칭 또는 균형을 의미하는데, 어떤 물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양측이 같은 모양인 경우를 말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시메트리 구조를 취하는 동시에 환경의 영향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한다. 시메트리의 중심은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이상이 되기도 하며,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다.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은 문신에게 진리와 같았다. 문신은 애시메트리(Asymmetry 비대칭)와 시메트리의 오묘한 균형감을 통해 이러한 유기적인 생명성을 작품에 녹여낸다. 그의 작품은 좌우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나 언제나 자연이 개입하는 범위 안에서의 오차를 허용한다. 그는 불가항력적 힘 안에서 이루어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었다. 이 책은 조각가 문신이 추구한 예술의 중심 원리인 시메트리의 개념을 상상-조화-배려로 해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의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한다. 문신의 작품에서 시메트리가 의미하는 바는 자연의 섭리이자 생명의 법칙, 즉 하나의 우주 그 자체다.



할 말 많은 미술관

정시몬 지음 / 부키 / 1만8천원

‘미술 덕후’가 쓴 미술 책. 저자 정시몬 씨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인 회계사 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한다. 틈나는 대로 좋은 책을 소개, 번역하거나 직접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것을 본업보다 더 좋아한다. 어린 시절 집 서가에 꽂혀 있던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의 화집을 펼쳐 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미술 감상을 즐겨 왔다. 이 책은 유럽의 유명 미술관 7곳에 소장된 미술품들과 나눈 대화의 기록이자 편견 없이 시작된 예술적 탐구 과정이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우피치 미술관, 아카데미아 미술관, 바티칸 미술관과 소장된 작품 이야기가 펼쳐진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노래, 영화에 관해 말할 때는 망설이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묻는 말엔 괜히 작아지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미술은 고상한 취미이며 예술적 지식 없이는 즐기기 힘들다는 인상 때문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가볍게’ 미술에 접근하길 권한다. 특별한 미술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저 좋아하는 작품 하나쯤 품겠다는 마음이면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미술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 있게 나만의 인생 작품 하나쯤은 간직할 수 있다.



우리 떡 이야기

조명숙 글, 김진영 그림 / 호밀밭어린이 / 1만6천500원

부산의 출판사 호밀밭에서 어린이 책으로 제주에서 연해주까지 역사 속에 깃든 우리 떡 이야기를 선보인다. 64가지 전통 떡의 유래와 특징을 지역별로 정리하고, 동시와 그림을 통해 맛깔나게 표현했다. 우리 전통 떡에는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담겨 있다. 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나눔과 배려, 정(情) 문화의 상징이다. 떡을 만드는 과정에도 조상의 지혜와 풍성한 이야기가 배어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11월 ‘떡 만들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책은 우리나라 떡뿐만 아니라 북한 떡, 중국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전해지는 이민자들의 떡 이야기까지 다루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한 아동문학가 조명숙 씨가 재미있는 동시로 떡을 소개한다. 부산에서 전문 도서 삽화를 연구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김진영 씨가 먹음직스런 그림으로 흥미를 돋운다. 손을 뻗으면 떡이 손에 잡힐 듯 해 한 입 베어 물고 싶다. 빵이나 패스트푸드보다 더 익숙한 어린이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우리 떡을 소개하고, 떡을 통해 우리 역사와 정서, 지역에 대한 지식까지 전해주는 책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제작공연 ‘MOTI/어디로부터’

11월 25일(금)
진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재)부산문화재단이 2021년 기획-제작한 <MOTI/어디로부터>가 11월 25일 진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경남도민들과 만난다.

지난해 (재)부산문화재단이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작한 ‘MOTI/어디로부터’는 부산이 낳은 걸출한 무용가인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를 맡았으며, 재단의 극장 무대기술 인력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부산 국·공립예술단체로서는 최초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외부기관 초청공연 유치라는 첫 사례가 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MOTI/어디로부터>는 코로나19가 만연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약 2개월 간의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지역 청년 무용수가 직접 참여한 Well Made Busan 작품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무용가로 자리매김한 이정윤 예술감독의 경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극한으로 내몰려진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비상을 꿈꾸는 젊은 예술가들의 춤 랩소디이다. 작품명인 ‘MOTI’는 ‘Motivation(동기)’의 준말이자 모퉁이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모티’를 가리키는 말로, 삶의 ‘모티’에 선 청년들의 비상을 향한 ‘Motivator’을 담고 있다. 2021년 초연 당시 불확실성의 시대에 극한으로 내몰려진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큰 호평을 받았다. 당시 이정윤 예술감독은 갑작스럽게 발병한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삶의 모티로 내몰린 젊은 예술가들이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내몰린 것인지 미처 질문할 새도 없이 맞닥뜨린 지리멸렬한 삶의 순간’을 살고 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영국제음악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과 통영국제음악재단(대표 이용민)이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발전과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6일 부산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부산문화회관과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협력하고 양 기관이 주최하는 콩쿠르와 기획공연을 상호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 “단순히 협약 체결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실무자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뜻이 같았다”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로단원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개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을 맞아 교향악단을 거쳐간 원로단원들을 초청, 지난간 60년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BPO Odyssey: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함께 원로단원들이 직접 들려주는 추억이 깃든 작품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지금의 교향악단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관객들과 함께 되돌아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하이든 교향곡 제101번 '시계' 3악장을 시작으로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야',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4악장,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4악장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1인 4매에 한해 선착순으로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부산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11월 7일(월)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1월 7일 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경성대학교 김원명 교수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제7대 수석 지휘자를 역임한 김강규 지휘자를 비롯하여 前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정읍시립국악단 김용호 단장, 前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동의대학교 교수인 윤상운, 부산오페라연합회 이소영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부산시립예술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과 토론을 통해 예술단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5분 도시 홍보를 위한
시립예술단 하하호호 콘서트**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광역시 역점사업인 '15분 도시'의 'Happy챌린지' 첫 대상지로 선정된 부산진구 당감개금생활권 주민들을 위한 '하하호호 콘서트'를 11월 한달간 지역 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일정	내용
11월 3일(목) 오후 3:00	동원초등학교 강당 청소년교향악단 현악4중주
11월 9일(수) 오후 3:00	개포초등학교 강당 청소년교향악단 현악4중주&합창단 중창
11월 17일(목) 오후 3:00	동원초등학교 강당 국악관현악단&합창단 중창
11월 26일(토) 오후 2:00	개포초등학교 강당 교향악단 현악4중주, 목관5중주&합창단 중창

• Review

**BSOC
PROGRAM**

2022.8-12월
August-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4분기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 7. 2.(토)-8. 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 7. 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 8. 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뭉뚱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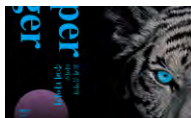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2. 8. 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평범한 청년들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문화 | 대극장 2022. 8. 26.(금)-27.(토)
금 8:00pm / 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첼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 9. 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 9. 15.(목)-10. 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율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문화 | 중극장 2022. 9. 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린 현실에 수놓이는 영원한 청춘의 낭만

오페라 <라 보엠>

문화 | 대극장 2022. 10. 1.(토)-2.(일) 3: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거장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2. 10. 26.(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전하는 희망의 노래

<부산오페라갈라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11. 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 Review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한국 대표 연출가 고선웅의 중국 고전!

<회랑기>

문화 | 중극장 2022. 11.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대극장 2022. 11. 9.(수) 7:30pm
※ 티켓 추후 오픈



해피 바이러스 대니의 음악에 누구나 커넥트되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문화 | 대극장 2022. 11. 20.(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바이올린 대니 구 | 피아노 원재연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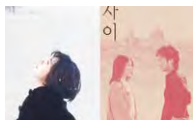
박근형 연출의 히트작
경숙이父女의 열차락뒤치락 가족사!
<경숙이, 경숙아버지>

문화 | 중극장 2022. 11. 25.(금)-26.(토)
금 7:30p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겨울을 알리는 O.S.T의 향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생정과 열정 사이>**

문화 | 대극장 2022. 12. 3.(토) 5:0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
젊은 거장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무대
사라 장&비르투오지

문화 | 대극장 2022. 12. 18.(일) 5:00pm
V 130,000원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토>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블랙스트링 콘서트>

시민 | 소극장 2022. 10. 1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내일의 우주로 떠나는 환상적 모험!

<갤럭시 일루전 쇼>

시민 | 소극장 2022. 10. 22.(토) 5:00pm
전석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왕의 말을 기록하는 승정원에서 벌어지는 사건!

<후설>

시민 | 소극장 2022. 10. 29.(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특유의 감성으로 매료되는 '스탠딩에그'
변복이는 워트르 사랑받는 믿음직한 밴드 '소란'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2. 12. 17.(토) 6: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이금이 작가 동명소설 원작
유쾌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두 명의 유진

<유진과 유진>

시민 | 소극장 2022. 12. 30.(금)-31.(토)
금 7:30pm / 토 2:00pm, 7:00pm
R 50,000원 S 40,000원 ※만 9세 이상 관람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8. 31.(수)-12. 28.(수)
매주 수요일 7:00pm
전석 무료



페스티벌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10. 7.(금), 10. 14.(금) 12:20pm
무료
※9. 30.(금)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10.21.(금)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부산 지역 예술가! 부산 지역 예술가에 의한!
부산 지역 예술가를 위한!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대극장 2022. 10. 11.(화)-11. 18.(금)
시민 | 대·소극장
※ 티켓 가격 및 세부일정 추후오픈



부산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해운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광현 | 작곡 노재봉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소프라노 한재민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

문화 | 챔버홀 2022. 8. 12.(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문화 | 대극장 2022. 9.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아드리안 페뤼송 | 소프라노 이명주



기획연주회

심포니야夜

문화 | 대극장 2022. 9.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9.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미완성 음악회 6

문화 | 대극장 2022. 10. 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문화 | 대극장 2022. 10. 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신창용



기획연주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10. 13.(목) 7:30pm
전석 2,000원



기획연주회

미완성 음악회 7

문화 | 대극장 2022. 11. 1.(화) 7:30pm
전석 5,000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감(回甲)

문화 | 대극장 2022. 11. 2.(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 오르간 신동일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2022. 12.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윤한결 | 바이올린 임재홍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문화 | 중극장 2022. 12. 4.(일) 5:00pm
전석 10,000원
바이올린 임홍균 | 피아노 홍민수



기획연주회

미완성 음악회 8

문화 | 중극장 2022. 12. 22.(목) 7:00pm
전석 5,000원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문화 | 중극장 2022. 12.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안무 박근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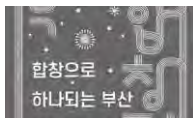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칸타타 '일향악세계기'

문화 | 대극장 2022. 7. 8.(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남양특집 '미스터리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7. 27.(수)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작·편곡 박한규, 이경은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8. 19.(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사화 윤중강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향연

문화 | 중극장 2022. 9. 20.(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문화 | 중극장 2022. 10. 7.(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River Dance 프로젝트

문화 | 대극장 2022. 12. 1.(목) 7:30pm

R 10,000원 S 5,000원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안무 이정윤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本色

문화 | 대극장 2022. 10. 20.(목)·21.(금)

8:00pm

R 30,000원 S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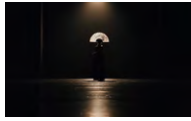
안무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시작-HAMLETique

문화 | 중극장 2022. 7. 15.(금)-17.(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 강태욱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올리 스위니'

해운대문화회관 2022. 8. 31.(수)-9. 2.(금)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 객원연출 강성우
출연 이혁우, 오희경, 채민수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2. 9. 20.(화)-24.(토)
평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공연), 토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이보람 | 객원연출 최용혁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2 '두 개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2022. 9. 6.(화)-7.(수)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임은재 | 연출 엄지선
출연 김은오, 서보기, 이태성



제73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문화 | 대극장 2022. 11. 25.(금)-26.(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15세이상 관람)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With

문화 | 챔버홀 2022. 7. 30.(토) 5:00pm
무료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문화 | 대극장 2022. 9. 6.(화) 7:30pm
전석 5,000원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 Ensemble

문화 | 대극장 2022. 10. 15.(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11. 5.(토) 5:00pm
무료



제6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합창'

문화 | 대극장 2022. 12. 6.(화) 7:30pm
전석 5,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11. 4.(금)-5.(토)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12. 10.(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복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복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복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오페라 <라 보엠>

10월 1일(토) 오후 3:00 **종료**

10월 2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블랙스트링 콘서트

10월 14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R석 20매)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10월 26일(수)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

<땡큐, 돈키호테>

10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회차별 30매)

연극 <후설>

10월 29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200)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연극 <회란기>

11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예술집단C <토끼h의 시간>

11월 9일(수)-10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일파가야금합주단 <현의 노래>

11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11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11월 25일(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2022 부산인터내셔널뮤직페스타

11월 26일(토) 오후 6:30, 27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5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경희댄스시어터

<그 곳엔 사람이 산다-우물가의 살인사건>

12월 2일(금) 오후 7:30,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생정과 열정 사이>

12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12월 17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20매)

사라 장&비르투오지

12월 18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뮤지컬

<유진과 유진>

12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2:00,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R석 10매)

2022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A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2022. 11. 26. 토 ~ 27. 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6일
6:00pm

27일
5:00pm



최백호 SGM SHIHO 안수지 GETZ ONE DROP EAST 윤수일

티켓 R석70,000원/S석50,000원/A석30,000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예매문의 www.bscc.or.kr / 051-607-6000(ARS1번)

주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주관 BIMF 집행위원회 사단법인 음악예술인협회



시각장애인은
위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BARRIER FREE
OPERA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BARRIER FREE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



예술 총 감독 & 오페라 도슨트 정희정 KNN 아나운서

OPERA

연출 노이름
지휘 윤승업
코치 손소향 (Piano)
연주 배리어프리오페라챔버

Violetta Sop. 이윤경
Alfredo Ten. 이범주
Germont Bar. 최병혁
Chorus 배리어프리오페라합창단

BARRIER FREE

성우 이선 수어 강에스더
전승화 이정훈
배한성 최요섭
김혜미 남수미
정미진

2022.11.09.(수)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무료

문의

시각장애인 051-462-3292

청각장애인 010-3902-6790

일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www.bfopera.com

주최/주관



후원



도움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맛집 BSCC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사진 맛집
#부산문화회관극장 #부산시민회관극장 #포토 존

31 이벤트 기간

2022년 9월 26일(월)~11월 15일(화)



포토존 주제

부산 시민이 추천하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포토 스팟



참여 방법

사진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포토존 #부산시민회관포토존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12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유의 사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당첨 상품은 정해진 금액에 상당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43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11.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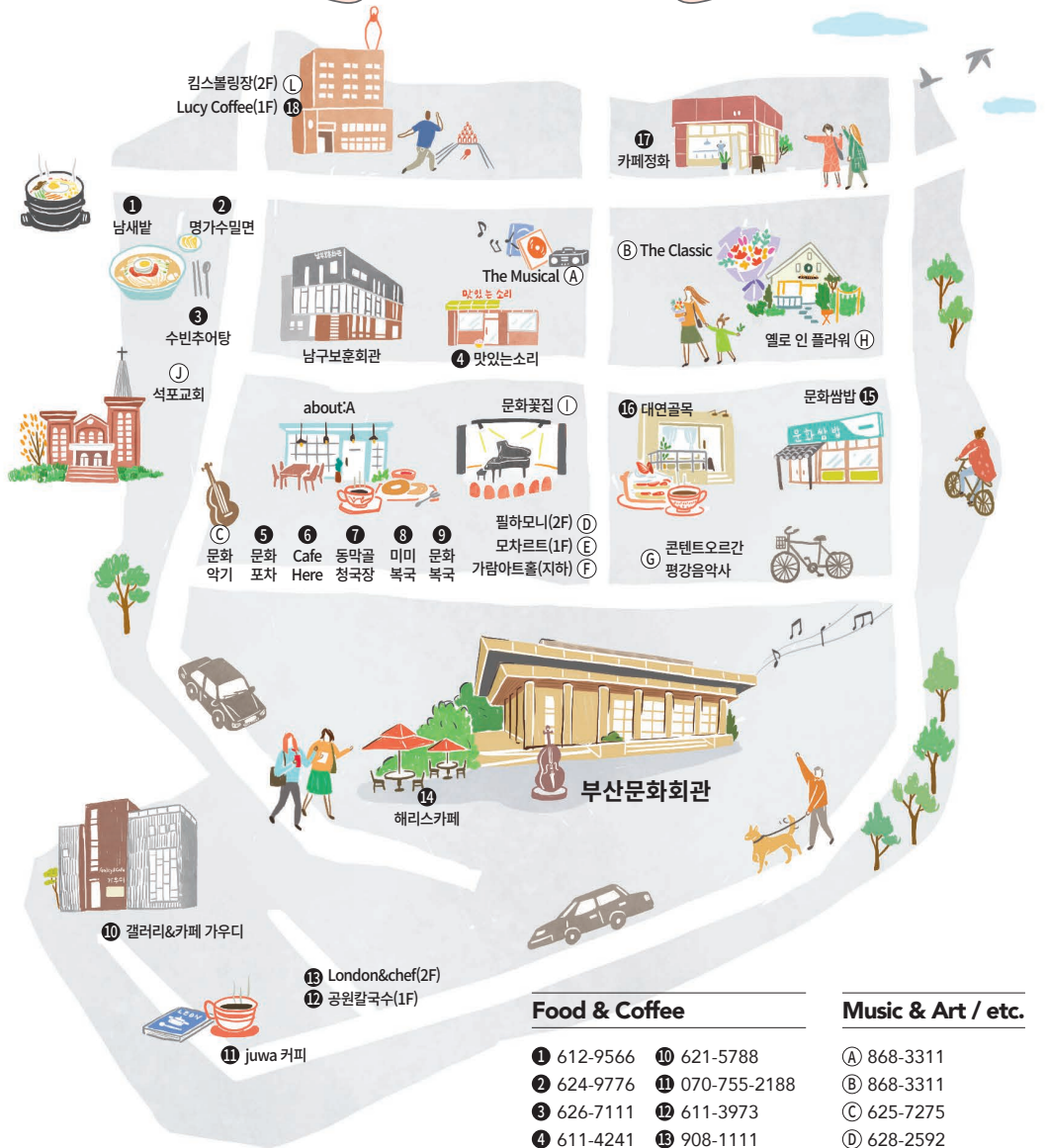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 ② 624-9776
- ③ 626-7111
- ④ 611-4241
- ⑤ 626-4448
- ⑥ 622-7412
- ⑦ 611-3589
- ⑧ 628-8009
- ⑨ 621-7040
- ⑩ 621-5788
- ⑪ 070-755-2188
- ⑫ 611-3973
- ⑬ 908-1111
- ⑭ 625-9402
- ⑮ 626-2292
- ⑯ 010-3996-6498
- ⑰ 623-0772
- ⑱ 628-3832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INVITATION TO THE ARTS
2022 11 NOVEMB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영호남 문화예술 교류공연

부산시립극단 제73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대본 작곡|백현주 대본 연출|김지용 안무|홍충민 지휘|전진 합창|나주시립합창단

2022.11.25(금)~26(토) 평일 19:30 토요일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051-607-6000 ARS1번 티켓 전석 2만원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가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협력사업 선정작

| 작·연출 | 박근형



연극
경숙이,
경숙
아버지

2022. 11. 25

금 7:30pm

- 11. 26

±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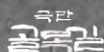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및 예매 | www.bscc.or.kr 또는 (051)607-6000 (ARS 1번)

작·연출 | 박근형 협력연출 | 이은준 조연출 | 김혁민 제작·기획 | 이호열 기획 | 안소영 무대감독 | 박희민

무대 | 김병건 조명 | 정태민 음악 | 박민수 의상·소품 | 이상숙 음향오퍼 | 홍명환 조명오퍼 | 이현직 디자인 | 정소진

주최 |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 부산문화회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작 |



경이롭고 완벽하다 — 뉴욕타임즈

장요진 | 이현나 | 심정혜 | 정민제 등 17인의 비르투오지

SARAH CHANG



VIRTUOSI

사라장 & 비르투오지

비탈리 샤콘느 g단조 |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BWV1043 |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전곡

2022. 12. 18^{SUN}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CREEDIA MUSIC & ARTISTS

|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1544-1555)

| 입장연령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